

<제2차>

한국문학탐방 II 자료집

2007

경남 남부지역 (4월 4일 - 4월 7일)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봄의향기 · 바다냄새 · 하늘빛깔

1. 탐방단 구성	-----	3
2. 일 정 표	-----	4
3. 발표장소/배정표	-----	5
4. 경남 남부 지도	-----	7
5. <1조> 최치원	-----	8
6. <2조> 조 식	-----	13
7. <3조> 신 충	-----	19
8. <4조> 변영로	-----	22
9. <5조> 이형기	-----	30
10. <6조> 이성복	-----	35
11. <7조> 김만중	-----	38
12. <8조> 박재삼	-----	44
13. <9조> 김동리	-----	49
14. <10조> 박경리	----	55
15. <11조> 이순신	----	59
16. <12조> 유치환	----	65
17. <13조> 최인훈	----	70
18. <14조> 김춘수	----	74
19. <15조> 구지가	----	78
20. <16조> 김종직	----	8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단장 : 학과장

조별 지도교수

1-4조 : 오춘택 교수 5-8조 : 이병기 교수

9-12조 : 이기인 교수 13-16조 : 임동훈 교수

재정 및 진행 기록 담당 : 민선희 조교, 보조 : 박나라

전체 진행 : 학회장(노재화), 발표 사회 : 답사부장(최문관), 숙식 관리 : 부학회장(박영은)

조	탐방대상	조장	1 학년	재 학 생
1	최치원	최문관	강찬민, 고희민, (최선희)	지연주, [마줄리, 말롤(언정)]
2	조 식	김성두	권오창, 김미라	(윤성준), (여환정)
3	신 충	진희선	김보민	
4	변영로	함경식	김보현, 김선희	강유미, 최세나
5	이형기	백동호	김수빈, 김예원	박나라, 윤숙
6	이성복	김주환	김유리	이범희
7	김만중	노재화	김정현, 김주연, (조용호)	함정석, (이재우,사)
8	박재삼	이상구		강정우, 하강 (36명)
9	김동리	강성보	박영훈, 박지희	조혜근, 문솔빈, 이영수
10	박경리	김영인	시민경, 안인태	변현지, (김지연)
11	이순신	이철민	우혜민, 이석원	박영은, 송아름
12	유치환	박수호	이영준, 이용희	유지나, (원수진), (채경민)
13	최인훈	최진용	이호영, 정정호	이소희,
14	김춘수	이윤수	조성아, 조영재	(김수정)
15	구지가	정한별	지소현	여희(중), (박나영)
16	김종직	박유미	최그림, 한소영	김은경 (38명)

< 인솔 관리 : 강성보, 최진용 숙식 관리 협조 : 김주환 > * () : 단순 참가

<배차> 총 82명

1호차: 1-8조(최문관 2호차), 오춘택, 이병기 교수, 민선희 조교, 유명희(교수,동문),- 39명

2호차 : 9-16조, 이기인, 임동훈 교수, 이한범, 동리(대학원) - 43명

<준비물>

공동 준비물 : 지도, 비상약 등

개인 준비물 : 의복, 필기도구, 자료집, 학생증, 카메라, 우산, 세면도구 등

<주의 사항>

유적 관람 시간 :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자유 관람할 때 개인 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2007학년도 <한국문학탐방 II> 일정표

	4월 4일(수)	4월 5일(목)	4월 6일(금)	4월 7일(토)
08	07:10 연암관 1층 앞 주차장 집합 07:30 학교 출발	05:50 상주해수욕장 출발 06:00 보리암등반(자료집지참) 보리암 관망(보광,863-1325) 참고 : 일출시간 06:11 이성부 <남해 금산>	06:40 여객선터미널집합 07:00 통영 터미널 출발 파라다이스호(유성해운) 645-3329(011-854-3575) 07:30 한산도도착(자료집)	07:30 조식 식당: 국일관 08:00 통영 출발
09		00: 조식 : 고래횃집 30: 벽련 출발(자료집 지참) 동진호(010-3119-6573) 59: 노도 김만중 유배지 김만중 <정경부인윤씨행장>	07:50: 제승당 도착 수루: 이순신 <시조> 08:10 제승당 출발 08:30 한산도 출발 09:00 조식 국일관	30 김해 도착 30 수로왕릉 관람 40 왕릉 출발 50 수로왕비릉 도착
10		20 노도 출발 30 벽련 출발	00 청마문학관	00 구지봉 도착 <구지가>
11	30 해인사입구 도착 40 홍류문 도착 최치원<제가야산독서당>		00 남망산 관람 유치환 <바위> 시비 김춘수 <꽃> 시비	00 김해 출발 30 밀양 도착 40 예림서원 도착 50 서원 출발
12	00 홍류문 출발	00 사천시 노산공원 도착 박재삼 <천년의 바람>시비 30 중식: 삼학횃집 (055-833-2257)	30 중식: 국일관	00 김종직 생가 김종직 <조의제문> 20 생가 출발 30 중식 : 두부마을 (055-355-7600)
13	00 산청 휴게소 도착 중식 : 휴게소 식당 (055-973-9036) 20 산청 휴게소 출발 40 산천재 관람 조식<제덕산계정주>현판	20 사천시 출발	00 통영 출발	00 밀양시내 출발 30 표충사주차장도착 40 표충사 관람 자유관람(30분) (입장 천육백,주차 오천)
14	10 덕산서원 자유관람 20 서원 출발 40 단속사 도착 신충 <원가> 조식 <단속사수종매>	10 다솔사 도착 김동리 <바위> <등신불> 40: 다솔사 출발	00 거제포로수용소 (055-639-8125) 유적공원 도착 (단체 2천원) 최인훈 <광장>	10 표충사 출발 40 북밀양 IC 출발
15	00 단속사 출발 30 진주성 도착 변영로 <논개> 시비	40 통영 도착	00 포로수용소 출발 30 해금강 유람선선착장 도착	
16	축석루 논개사당 의암 30 진주성 출발 40 신안동 녹지공원 이형기 <낙화> 시비	00 세병관 관람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30 통영중앙동우체국 유치환 <행복> 시비	30 해금강 출발 [다대(14)-탐포(1018)- 울포-하둔-청마 선조 고 향.묘소-(1018)-통영]	
17	00 진주 출발		일몰 관람(일몰 18:51)	
18	20 남해 상주해수욕장 숙소: 상주장여관 30 석식: 고래횃집	00 통영 숙소 도착 숙소: 명성모텔 30 석식:국일관 주차장: 여객선터미널	40 통영 숙소 도착 50 석식(만찬 및 평가회) 숙소: 명성모텔 석식: 국일관	30: 춘천 도착

* 출발과 도착은 버스 및 배의 시간을 뜻함(휴게소 정차 시간 : 10분)

2007년 한국문학탐방 발표 장소 및 배정표

한국문학관협회 <http://www.munhakwan.com/> 경남문화사랑방 <http://kdo.gnnews.co.kr/>

통영여행 <http://www.tongyeong.pe.kr/> 경남문학관 <http://www.gnmunhak.com>

1. 최치원(한문학) 경주최씨종친회 <http://www.gyeongjuchoi.com/>

해인사 홍류동계곡 : I. 최치원의 생애(지연주), II. 최치원의 작품세계(강찬민), III. 최치원의 사상(최선평), IV. <제가야산독서당>의 이해(최문관), V. 최치원 관련유적(고형민)
마줄리(연정, 필리핀)

2. 조식(한문학) 남명학연구원 <http://nammyung.org/new/index.php>

산천재 : I. 조식의 생애(권오창), II. 조식의 지리산 기행과 <유두류록(遊頭流錄)>(김성두), III. 조식의 <제덕산계정주>(題德山溪亭柱)와 <설매(雪梅)>(윤성준), V. 조식 관련유적(김미라)

단속사 : VI. 강희백의 <단속사수종매>(斷俗寺手種梅)와 조식의 <증산인유정>(贈山人惟政)(여환정)

3. 신충(향가)

단속사: I. 신충에 대하여(김보민), II. 단속사의 유래(김보민), III. <원가>의 이해(진희선).

4. 변영로(현대시)

진주성 : I. 변영로의 생애(김보현), II. 변영로의 시세계(최세나), III. 논개사당과 의암에 대하여(함경식), IV. 변영로의 <논개>와 한용운의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廟)에>의 비교(강유미), V. 변영로 관련유적(김선혜)

5. 이형기(현대시)

진주 신안동 녹지공원 : I. 이형기의 생애(김수빈), II. 이형기의 시세계(백동호), III. <낙화>의 이해(박나라), IV. <호수>와 <나무>(윤숙), V. 이형기 관련유적(녹지공원 시비, 부산 성지곡수원지 시비, 묘소 등)(김예원)

6. 이성복(현대시)

금산 보리암 : I. 이성복에 대하여(김유리), II. 이성복의 시세계(이범희), III. <남해 금산>의 이해(김주환)

7. 김만중(고소설)

남해 노도 : I. 김만중의 생애(김정현), II. 김만중의 국문문학관(김주연), III. <구운몽>의 저작 시기와 장소(함정석), IV. <정경부인윤씨행장>의 이해(노재화), V. 김만중 관련유적(조용호)

8. 박재삼(현대시)

사천 노산공원 : I. 박재삼의 생애(하강), II. 박재삼의 시세계(하강), III. <천년의 바람>의 이해(이상구), IV. <울음이 타는 가을강>(강정우), V. 박재삼 관련유적(이상구)

9. 김동리(현대소설)

곤명 다솔사 : I. 김동리의 생애(박영훈), II. 김동리의 소설세계(문술빈/박지희), III. <등신불>의 이해(조혜근), IV. 다솔사, <바위> 및 <등신불>의 산실(강성보), V. 김동리 관련유적(이영수)

10. 박경리(현대소설)

세명관 : I. 박경리의 삶(시민경), II. 박경리의 소설세계(안인태), III. <김약국의 딸들>의 이해(변현지), IV.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김영인)

11. 이순신(시조) <http://www.e-sunshin.com/>

한산도 제승당 : I. 이순신의 생애(우혜민), II. 이순신의 <한산도가>의 이해(이철민), III. <한산도가> 시조의 작가 시비(박영은), IV. 이순신 관련유적(송아름/이석원)

12. 유치환(현대시) 청마문학관 <http://www.gnty.net/ty/literature/>

청마문학관 : I. 유치환의 생애(유지나), II. 유치환의 시세계(원수진)

남망산공원 : III. <깃발>의 이해(이영준)

통영중앙동우체국: IV.유치환의 사랑과 <행복>(박수호), V.유치환 관련유적(이용희)

13. 최인훈(현대소설)

거제도포로수용소 유적공원 : I. 최인훈의 삶(이호영), II. 최인훈의 소설세계(정정호), III. <광장>의 이해(최진용), IV. 거제포로수용소와 <광장>의 배경(이소희)

14. 김춘수(현대시)

남망산공원 : I. 김춘수의 생애(조성아), II. 김춘수의 시세계(김수정), III. <꽃>의 이해(이윤수), IV. 김춘수 관련유적(조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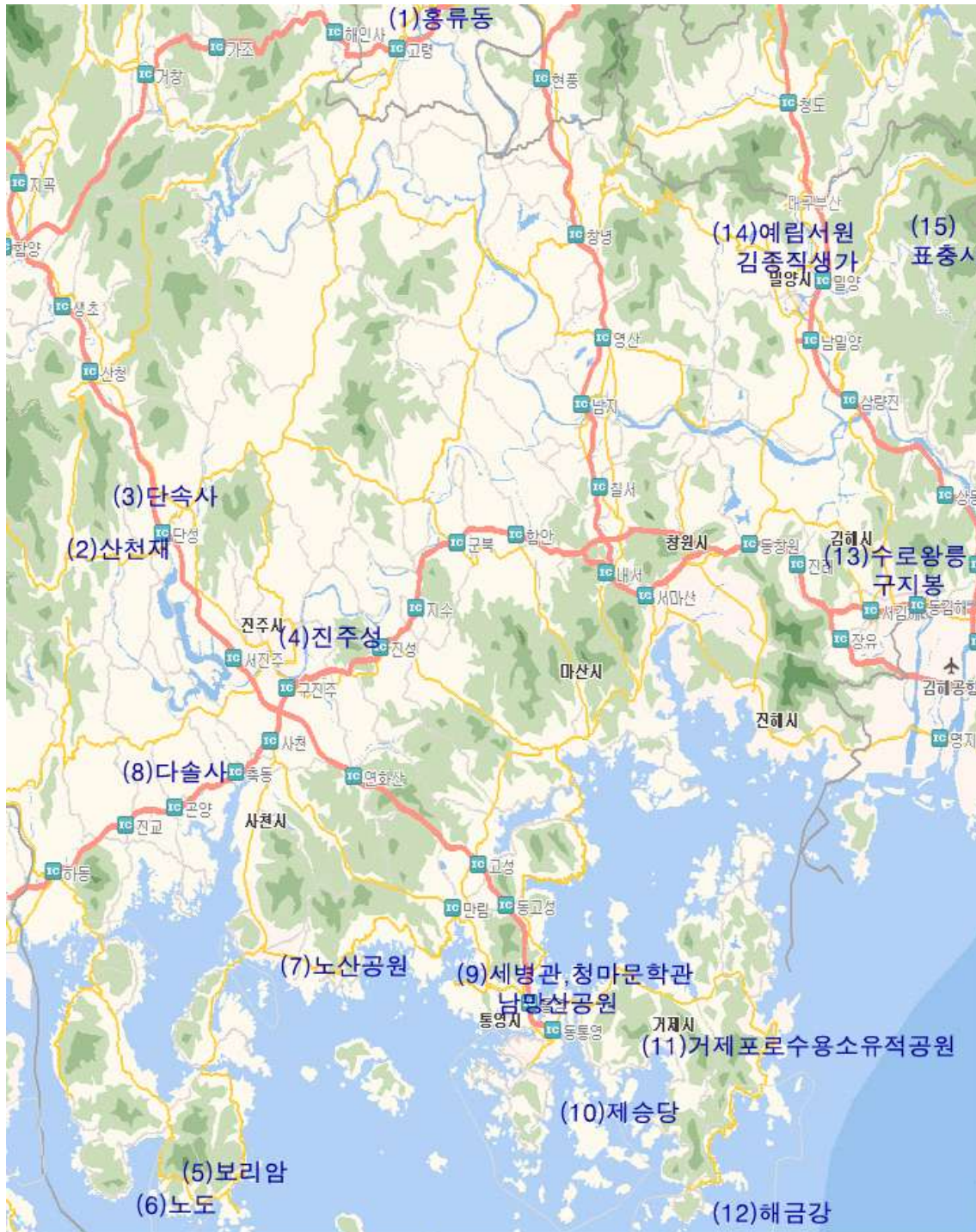
15. 구지가(고대가요)

구지봉 : I. 김수로왕과 허황옥(박나영), II. <구지가>의 이해(정한별), III. 관련유적(지소현) 여희(중)

16. 김중직(한문학)

김중직 생가 : I. 김중직의 생애(최그림), II. 사림파의 형성(김은경), III. 무오사화와 <조의제문>(박유미), IV. 김중직 관련유적(한소영)

2007 한국문학탐방 지도



<제1조>

I. 최치원의 생애

20031167 지 연 주

1) 유년시절

최치원(857~?)은 신라 골품제에서 6두품(六頭品)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 가문 출신인 견일(肩逸)의 아들로 자는 고운 또는 해운이라 한다. 최치원은 868년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 스승을 찾는데 힘썼으며 이 시기 그의 작품 『계원필경』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시재로, 재능 있는 문필가로 널리 알려져 중국의 이름난 시인, 문필가들을 경탄시킬 정도였다고 한다.

2) 당나라에서의 활동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지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다. 또한 2년간 낙양(洛陽)을 유랑하면서 시작(詩作)에 몰두하였는데, 그때 지은 작품이 『금체시(今體詩) 5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五言七言今體詩) 100수 1권』, 『잡시부(雜詩賦) 30수 1권』 등이다. 그 뒤 876년 당나라의 선주(宣州) 율수현위(涑水縣尉)가 되었으며 이 시기의 작품을 모은 것이 『중산복게집 1부 5권』이다. 그 뒤 887년 겨울 사직하고 일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변(高駘)의 추천으로 관역순관(館驛巡官)이 되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879년 ‘황소의 난(黃巢-亂)’이 일어나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서기를 맡았을 시기였으며 승무랑전중시어사내공봉(承務郎殿中侍御史內供奉)으로 도통순관(都統巡官)에 임명되었다. 이 시기의 작품만 1만여수에 달하는데 그 중 『토황소격(討黃巢檄)』이 제일 유명하다.

그가 당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한 전반기에는 통치계급의 입장에 서있었으나 후에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관료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상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짙게 하였으며 이것은 그가 16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국에 돌아갈 결심을 품은 계기가 되었다.

3) 귀국 후의 활동

885년 최치원은 28세의 나이로 고국에 돌아와 그후 약 10년간 시독, 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 아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귀국 후 초기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펴려 했지만 진골귀족 중심의 신분체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함에 실망하여 890년에는 지방 태수로 자리를 옮겼다. 894년에는 시무책(時務策)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는데 그가 10여년 동안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중앙 진골귀족의 부패와 지방 세력의 반란 등의 사회모순에 대해 쓴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으로 그는 6두품 최고의 관직인 아찬에 올랐으나 당시의 사회모순을 외면하고 있던 진골귀족에 의해 시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통치세력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지방 관리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4) 은거생활

신라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치원은 신라왕

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고 40여세의 나이에 은거를 결심하였다. 그는 이처럼 극절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시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역사, 민속, 철학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만년에는 가야산 해인사에서 생활하였다고 알려지는데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어떤 학자는 방랑하다가 죽었다 하고 혹은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거나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도 있다.

II. 최치원의 작품세계

20071101 강 찬 민

최치원의 작품세계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기준으로 삼아 크게 세 시기로 당나라 유학 시절, 고국으로 돌아와 신라에서 관직을 하던 시절, 가야산 입산하여 은거하던 시절로 나눌 수 있다.

고운 최치원은 12세에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고변 종사관으로서 당서 『예문지』에 그의 저서가 실리는 등의 활약을 하다가 28세(885년)에 귀국하였다. 당나라에 있을 때 최치원은 『토황소격문』¹⁾을 지어 황소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등 많은 시와 산문을 창작하여 중국의 이름난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문명을 날리었다. 이 시기의 그의 작품세계는 타향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향의 그리움, 입신양명에 대한 고뇌를 그리는 작품이 많았다.

신라에 귀국 후 약 10년간 시독, 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 아찬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태산, 천령, 부성의 태수로 벼슬살이를 하였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올 때 그동안에 당나라 유학 시절에 배운 그의 역량을 신라에서 펴고자하는 큰 포부를 안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 했듯이 중앙 진골 세력으로 인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외직으로 밀려난다. 이 시기 신라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쇠퇴기로 그의 이상과 다른 현실을 그린 고뇌의 시(侍)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신라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최치원이 결정적으로 가야산에 은거하게 된 큰 계기는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의 뜻을 펼 수 없는 현실의 고뇌 속을 헤매다 가야산으로 입산하게 된다. 또 다른 견해로는 최치원이 신라가 곧 쇠퇴할 것을 예견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로 대두 하고 있던 개경의 왕건에게 ‘鷄林黃葉(계림황엽) 鷓嶺靑松(곡령청송)’²⁾이라는 아부성의 시를 지어 보내서 신라의 노여움을 사 가야산으로 은거 하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의 이후 행적으로 보아 첫 번째 견해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가야산 은거 후 그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미련을 자연 속에서 떨쳐버리며 여생을 보내게 된다.

그의 작품세계는 이렇듯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당나라 유학시절 유학생으로서의 한계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신라 사회의 혼탁함과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없는 현실, 가야산 은거 후 떨쳐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미련들이 그에게 시를 쓰게 부추기고, 그러한 역경과 고뇌들의 밑바탕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 제49대 왕 헌강왕 때 최치원(崔致遠)이 중국 당나라에서 벼슬하며 황소(黃巢)를 치기 위하여 지은 격문.

2) 의역하면 ‘신라는 시들어가는 누런 잎이고, 왕건이 있는 개경은 소나무처럼 푸르다.’ 라는 뜻.

III. 최치원의 사상

20071139 최 선 필

1. 풍류사상

풍류란 밝고 포용력 있는 하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시키는 정신을 말한다. 최치원 선생의 풍류사상은 유·불·도의 각기 다른 사상을 따로 보지 않고 조화시켜 보려 하였다. 삼국사기에 인용된 난랑비서에는 유·불·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풍류도가 나타나고 있다.

-난랑비서문-

-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풍류도’라 한다.
- 이 가르침의 연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를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이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 들어와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니, 이는 공자의 가르침과 같다.
-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과 같다.
-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석가의 가르침과 같다.

위의 짤막한 난랑비서문을 통해 최치원의 사상이 풍류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풍류도란 우리의 전통사상으로서 삼교의 내용을 포함하고 오랜 세월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 속에서 함양하며, 만물 군생을 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인데, 최치원은 외국에 나가서 알게 된 상호 이질적인 사상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통일된 질서와 체계를 가진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2. 동인(同人)사상

최치원 선생의 동인사상이란 ‘진감화상 비명’에서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가 있으며 이방인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도의 평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말은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의 평등을 강조하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상이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평등의식을 보면 골품제에 대한 그의 반감도 엿볼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도가 있다는 생각은 특권층을 편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3. 유학사상

그의 유학사상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림으로서 ‘인’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정치를 하고 ‘효’로서 부모를 받들며 예의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정치로 유가의 도를 넓히고자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격언을 살펴보면 신하는 임금이고 대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처럼 되기를 위하여야 하고 세상에선 어진 인재가 필요하므로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은 소부나 허유가 되기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고운 최치원 선생은 유학자로서 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쳐 보고자 하였음을 생각해 한다. 이를 알 수 있는 관련 서적으로는 ‘선안주원벽기’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선안주원벽기-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받드는 것은 도(道)이다.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요,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도가 만일 높아진다면 사람은

저절로 귀하게 될 것이니 능히 도를 높이는 것은 오직 덕(德)을 높일 뿐이다. 그런 즉 도가 높아지며, 덕이 귀하게 되는 것은 법수(法首)를 돌보고 생각하며, 물정(物情)을 방정(方正)하고 흡족하게 함이다. 반드시 이름(名)을 바로 잡아야 이에 대덕(大德)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는 도를 익지로 대(大)라 이름한데서 말미암아 덕이 이루어져 올라가는 것이다. 《중용》에서 일컫기를 지위(地位)와 명예(名譽)와 수(壽)를 얻는다고 했으니 교화(教化)의 말(說)은 장차 이것이 아니겠는가?—

IV.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의 이해

20011173 최 문 관

1. 시의 배경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치원이 가야산 독서당에서 쓴(題-제목, 제) 것이다. 그 실제 배경은 지금의 합천 가야산 해인사 입구 홍류동(紅流洞) 농산정(籠山亭)으로 ‘농산정’은 홍류동 계곡 바위 위에 새겨져 있는 그의 시에서 나온 것이고, 가을이 되면 맑은 계곡이 흐르는 곳에 단풍이 붉은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해서 ‘홍류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시를 ‘농산정, 가야산홍류동’이라고도 한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당(唐)나라로 가서 유학시절을 거치고 고국인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당에서나 신라에서나 불운하고 혼란한 시대상황을 겪는다. 당나라 유학시절 뛰어난 글 솜씨로 널리 이름을 떨쳤지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유학생으로서의 한계와 타향 생활의 어려움, 당나라의 혼란한 사회상으로 인해 17년여 간의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그의 나이 29살(885년)에 큰 포부를 안고 신라로 돌아온다. 이때 신라 역시 시대적으로 혼란하고 쇠퇴해 가는 시기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최치원은 중앙 진골세력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외직(外職)인 태산(현 태인)군수로 밀려나게 된다.

진성왕 8년(894년)에 그는 왕에게 나라를 구하는 시무책 10여조를 올린다. 하지만 그것이 재상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의 이상과 능력을 펼 수 없는 현실은 계속해서 그를 힘들고 지치게 했다. 그러한 연유로 그는 그 다음해에 세상의 소리를 등지고 가야산으로 입산 하여 여생을 마감하게 된다. ‘제가야산독서당’은 최치원이 가야산 입산 후(39세 이후) 지은 것으로 그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갈등이 잘 나타나 있는 시이다.

2.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원문

狂噴疊石吼重巒 (광분첩석후중만)	물은 계속 미친 듯이 바위를 치며 산을 울리어
人語難分咫尺間 (인어난분지척간)	가까운 곳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네.
常恐是非聲倒耳 (상공시비성도이)	항상 세속의 옳고 그른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故教流水盡籠山 (고교류수진롱산)	흐르는 물로 모두 병어리 산을 만들게 했네.

3. 감상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는 조그마한 소리도 잘 들리게 마련이다. 아마도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거닐며 그는 여러 가지 현실의 세상사를 걱정하고 고뇌하고 있다가 유난히 큰 계곡 물소리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현실의

괴로움을 자연의 소리로 위로 받았는지 모르겠다. 물이 계속해서 바위를 치며 소리가 나듯 세상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소리 역시 그의 마음에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리는 물소리처럼 현실이 항상 그를 힘들게 했다면 자연은 그를 감싸주고 위로해준 것이다.

V. 최치원 관련 유적

20071102 고 형 민

1. 청룡대 각석

1997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 188호로 지정되었다. 신라 말의 학자인 최치원의 유적으로 지리산에 은거하기 전 낙시를 즐기며 소요하던 곳이다. 2.4 × 1.4m의 화강암계통의 자연암석 동남부에 60×35cm의 각자부를 마련하고 ‘청룡대 치원서’ 라고 음각하였다. 필체의 형태로 보아 최치원의 친필로 여겨진다. 최치원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청룡대비’를 건립하였다.

2. 상 서 장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집이라는 뜻’으로 “상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려 말기에는 ‘문창후최치원상서장유허비’가 세워졌다. 최치원이 당 유학을 마치고 국정을 바로 잡는데 애썼고, 이 곳에서는 임금에게 많은 글을 올렸다. 그 뒤 건물이 퇴락하여 허물어졌고 지금 건물은 후손들이 다시 세운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영정각, 상서장, 추모문 등이 세워져있으며 영정각에는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내고 있다.

3. 월 영 대

최치원이 대(臺)를 쌓고 제자를 가르치던 곳이다. 동편 중앙에는 숙종 때 최위가 창원도호부로 부임하며 세운 유화비가 안치되어 있으며, 서편에는 최씨문중에서 추모비를 안치해 놓았다. 동북쪽에는 최치원이 해서체로 <월영대>라고 쓴 3자가 입석에 새겨져있다 남쪽에는 숙종 때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 보수비가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문신과 선비들이 순례하며 남겨놓은 시들도 <동문선>과 <여지승람>에 남아 있다.

4. 무 성 서 원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최치원을 제향하기 위한 태산사였지만 숙종 때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으로 바뀌었다. 태산사는 성종15년 최치원을 제사지낸 유상대 위에 선현사를 이건하여 많은 선비들을 같이 모시고 있다. 최치원은 3칸인 신문을 지나 사우인 단층 3칸의 태산사가 있는데, 그 안에 최치원을 북쪽 벽에 안치하고 다른 분의 위패를 좌우에 봉안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현종 때 중수 한 것이며, 명륜당은 1825년에 불탄 것을 1828년에 중건 한 것이다. 특히 이 곳에는 ‘원생록 원규’ 등 중요한 서원 자료가 있다.

5. 해운대 각석

1999년 3월 9일 부산시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었다. 해운대의 명칭에 관한 일화 중 최치원이 가야산으로 향하던 도중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에 흠뻑 젖어 대를 만든 후 ‘해운대’를 암석에 음각하였는데 이 후로 이곳은 해운대로 불리고 있다.

해운대 각석의 글씨는 최치원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고려시대 당시 문신이었던 정포의 시에서 ‘대는 황폐하여 흔적이 없고 오직 해운의 이름만 남아 있구나’ 라고 읊고 있어 그 이전부터 이 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오랜 세월 풍화되어 운(雲)자가 심하게 닳아있다.

<제2조>

1. 조식의 생애

20071103 권 오 창

남명(南冥) 조식(曹植)은 조선조 연산군 7년(1501) 6월 26일 경남 합천군 삼가면 토동에서 아버지 조언형과 어머니 인천이씨 사이의 삼남 오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가는 삼가현에 있었고, 토동은 선생의 외가다. 선생의 자는 건중이요, 호는 남명이다.

5세 때까지 외가에서 자라던 선생은 아버지가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르자 서울로 이사해서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다. 소학기에 들어서는 이윤경, 이준경 형제, 이항 등과 죽마고우로 자라면서 학업을 닦았다.

20세에 생원 진사 양과에 일, 이등으로 급제했다. 남명은 고문에 능하여 고문으로 시권을 써서 시관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 글을 사람들이 외우기까지 하였다. 이 때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죽고 숙부인 조언경이 멸문의 화를 입자 시국을 한탄한 선생은 벼슬을 단념하였다.

26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고향인 삼가에 장사지내고 삼년 여묘살이를 하였으며 가난과 싸우면서 민생들의 고초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남명사상 속에 항상 민생을 잊지 못한 것은 이 때 생민의 어려움을 실제로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에 이사하여 거기에 산해정을 짓고 안정된 공부에 들어가니 태산에 올라 사해를 바라보는 기상을 길렀다. 여기에 성대곡 이청향당 이황강 신송계 등 선비들이 모여들어 기묘사화 이후 퇴색했던 사기를 응집, 재기를 도모하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48세 때 18년간 학문기반을 닦던 김해를 떠나 다시 고향인 토동에 돌아와 계부당과 뇌룡정을 짓고 한편으로는 후진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처사로서 언론을 발하여 국정을 비판하였다. 김해에서의 18년 생활은 급기야 사람의 기풍을 다시 진작하는 힘이 되어 사람은 그를 영수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이를 안 조정은 그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그를 벼슬길로 나오도록 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61세가 되자 선생 일생의 마지막 도장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는 덕산의 사윤동에 산천재(山川齋)를 짓고, 60년 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학문과 도덕과 인격과 정신사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많은 영재들을 모아 가르쳤다. 과연 선생의 일생은 이 산천재에서의 만년을 잘 장식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비로서는 최고 최선의 전형이 되었다. 그것은 여기서 길러진 학생들이 조선 선조시대의 정치 학술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고,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한 절의지사들이 대부분 선생 문하에서 나왔다.

66세에 진사로서 포의로 왕과 독대하여 치국지방(治國之方)과 학문지요(學問之要)를 말했다. 선조가 등극하자 여러 번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정책을 진언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71세 때의 일이고, 국정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었다.

72세(1572)되던 해 2월 8일 천수를 다하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윤동에서 조용히 운명하였다. 선생 사후 나라에서는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II. 조식(曹植)의 지리산 기행과 「유두류록(遊頭流錄)」

20001011 김 성 두

조식의 「유두류록(遊頭流錄)」은 명조 13년(1558)에 쓰여진 것으로 『남명집(南冥集)』 제2권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두류는 지리산의 옛 명칭으로 ‘유두류록’은 말 그대로 지리산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두류록’은 남명 조식 외에도 많은 작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유기(遊記)를 짓게 된 동기와 목적은 각기 다르다. 조위한이나 박장원, 양대박 등은 기행의 체험을 기록하였다가 훗날 감상의 자료로 삼기위해 기록하였고, 조식이나 이륙처럼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서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행을 돕기 위한 길잡이로서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조식은 지리산 자락에서 나고 자라 생애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전해진다.

여러 친구들이, 내가 두류산을 자주 오르내렸으니 산중의 일을 잘 알 것이라 하여 나에게 기록하라 하였다.
- 조식, 「유두류산록」 -

지리산 유람의 체험을 기록한 지리산 유기는 한국문학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행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기행문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지리산을 외형적으로 살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와 문화의 모든 면을 총체적으로 살핀 사색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유기(遊記)의 작자들은 당대의 대표적 지식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유람 목적은 단지 산수의 경치를 구경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지리산을 단순한 관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신의 수련장이며 역사의 현장으로 이해하면서 그곳을 찾았다. 유기(遊記)의 작자들은 지리산 유람을 필생의 사업으로 알고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결연한 자세로 등정에 올랐다. 대체로 열흘이 넘는 유람의 기간을 통해 지리산 속의 문화와 역사의 유적을 더듬으면서 그 속에 배어 있는 삶의 자취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지리산유기는 조선조 유학자들이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낸 기록이다. 거기서 그들은 빼어난 경관을 구경하면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새삼 확인하고, 이 땅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또한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최치원 같은 역사 속의 위인들을 만난다. 또한 산사에 모여 수도하는 승려들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논하기도 하고, 불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바탕을 마련하기도 한다.

지리산유기는 조선조의 다른 기행문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학유산으로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역사와 철학의 자료로서 이해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기(遊記)의 내용 가운데는 작자들의 인생관이며 역사관이 녹아들어있다. 그들은 역사와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를 취한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거만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나 지식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기도 한다. 신선을 찾아 청학동을 오르기도 하고, 황당한 설화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도 한다. 지리산유기 속에서 우리는 작자들의 인간적 면모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각박한 정치 현실에서 보여주는 당대 지식인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념의 노예가 되어 인간적 면모를 상실한 일부 관료 학자들과는 달리, 자연의 장관에 감격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알며, 어려움에 처한 힘없는 이웃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베풀 줄 아는 살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유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웅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미약한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겸손을 배웠다.

III. 조식의 <제덕산계정주(題德山溪亭柱)>와 <설매(雪梅)>

20061127 윤 성 준

題德山溪亭柱(제덕산계정주) - 덕산 계정의 기둥에 쓰다 / 조식

請看千石鍾(청간천석종) 천석들이 종을 보게나!

非大扣無聲(비대구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네.

爭似頭流山(쟁사두류산) 어찌하면 두류산처럼

天鳴猶不鳴(천명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까.

《남명집》 《한국문집총간》 31, 464면

조식의 대표작으로, 지리산 아래 덕산이라는 곳에 있는 정자의 기둥에 적은 시이다. 덕산은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군이며, 본문에 나오는 '두류산'이 지리산이다. 남명 조식은 두류산 아래에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만 전념했다. 남명은 당시의 사회상과 권력구조에 실망한 나머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지리산은 크고 높고 장엄하여 뇌성벽력과 같이 하늘이 울어도 산은 결코 끄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남명은 어쩌면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초연한 의지에 빗대어 지리산을 노래한 것이다.

雪梅(설매), <清香堂八詠(청향당팔영)> / 조식

歲晚見渠難獨立(세만견거난독립) 한 해가 저물어가니 홀로 지내기 어려운데

雪侵殘夜到天明(설침잔야도천명) 이른 새벽부터 날이 설 때까지 눈까지 내렸구나.

儒家久是孤寒甚(유가구시고한심) 선비집은 오래도록 외롭고 춥기 짝이 없는데

更爾歸來更得清(경이귀래경득청) 매화 다시 피어나니 맑은 기운 다시 솟네.

《남명집》 《한국문집총간》 31, 470면

경상도 삼가현(현 경남 합천군 삼가면)이 고향인 선생은 61세때인 명종 16년(1562)에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 들어와 산천재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다. 산천재 앞뜰에는 선생의 호를 딴 '남명매'라는 매화나무가 한그루 서 있다. 선생이 손수 심었다는 '남명매'는 수령을 산천재의 역사로부터 추정하면 440년가량 된다. 선생의 매화나무 사랑은 <설매(雪梅)>라는 시에서 나타난다. 평생을 벼슬길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온 선생은 봄철, 매화향기를 맡으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후학양성에 몰두했는지도 모른다. 남명선생은 산천재에서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뜰 때까지 덕계 오건과 곽재우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IV. 조식 관련 유적

20071105 김 미 라



시천면 사리에 위치한 산천재(사적 제305호)는 명종 16년(1561)에 남명이 손수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불에 타버린 뒤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순조 18년(1818)에 고쳐 지었다고 한다. 남명 조식선생이 72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며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덕천서원은 남명 선생이 죽은 뒤 그의 제자들에 의해 1575년에 건립된 서원으로 처음에는 덕산서원이라 이름 하여 남명 조식 선생의 위패만을 봉안했다가 나중에는 수우당 최선생의 위패를 같이 모셨다. 1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화재로 소실되었고 진백곡, 이모촌, 하창주 등 이 중 건했으며 광해원년(1609)에 사액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숭덕사, 서원의 중심 건물로 강학을 하던 경의당, 기숙사 역할을 하던 동재인 수경제와 서재인 진덕재, 그리고 시정문, 세심정이 있는데 수년전 담장과 홍전문, 등이 지어졌다.



남명기념관은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여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고 선생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경의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8월에 개관하였다. 기념관 내부에는 남명선생과 관련된 유물 전시실과 영상정보실, 교육관,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외부 공간에는 신도비, 남명석상, 여재실 등이 있다.

제1전시실에는 남명 선생이 실천하는 학문으로의 전환점이 된 서적들과 경의검, 성성자등 남명의 수행과 실천에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제2전시실은 남명의 가르침을 따랐던 제자들을 주제로 한 전시실로 제자들의 유물과 미니어처 연출, 의병활동과 관련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그의 업적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제3전시실은 남명정신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한 오늘날의 노력과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현한 공간으로 이곳에선 사숙 및 문인의 유물과 사적의 전경모형을 볼 수 있다

V. 강회백의 <斷俗寺手種梅>와 조식의 <贈山人惟政>

20061124 여 환 정

지리산 단속사(斷俗寺)에는 정당매(政堂梅)라는 매화나무가 있다. 정당매는 강회백(姜淮伯, 1357-1402)이 소년시절 단속사에서 글공부를 할 때, 손수 심은 매화나무이다. 훗날, 그가 정당문학(政堂文學)이라는 벼슬을 하면서 "정당매"라 이름 붙게 되었다.

강회백은 46세로 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이 손수 심은 정당매에 찾아와 <단속사수종매>라는 시를 읊었다.

강회백의 <斷俗寺手種梅> 단속사에 손수 심은 매화

偶然還訪故山來(우연환방고산래) 우연히도 고향산천 다시 찾아오니
滿院清香一樹梅(만원청향일수매) 한 그루 매화 향기 사원(寺院)에 가득하네.
物性也能知舊主(물성야능지구주) (매화의) 물성 또한 옛 임자를 알아보는 듯
慙慙更向雪中開(은근경향설중개) 은근히 나를 향해 눈 속에서 피어나네.

一氣循環往復來(일기순환왕복래) 한 기운(겨울)은 순환하는 것이라 가고 또 오니
天心可見臘前梅(천심가견납전매) 천심을 매화로부터 볼 수가 있겠네.
自將鼎鼎調羹實(자장정정조羹실) 이제 술 걸고 매화 열매로 조리하려니
慢向山中落又開(만향산중낙우개) 홀로 산 속에서 졌다가는 또 피어나네.

첫수에는 매화를 다시 보게 된 반가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특히 3구의 매화가 옛 사람을 알기라도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은 매화에 대한 작자의 친근감과 반가움이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수에는 자신의 포부를 매화와 관련시켜 읊고 있다. '술에 조리할 것'이란 말은 옛날 시에 많이 등장하는 고사(故事)로, 정치하는 일을 말한다. 곧, 정치를 술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에 견주어 이 같은 비유를 사용하는데, 장차 조정에 나아가면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단속사 초입에는 '남명선생시비'가 세워져 있다. 시비에는 남명조식(南冥曹植: 1501-1572)이 사명대사유정(四溟大師 惟政: 1544-1610)에게 준 <贈山人惟政>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조식의 <贈山人惟政> 유정산인에게

花落槽淵石(화낙조연석) 꽃은 조연(槽淵)의 돌에 떨어지고 [조연- 단속사에 있던 연못]
春深古寺臺(춘심고사대) 옛 단속사 축대엔 봄이 깊었구나.
別時勤記取(별시근기취) 이별하던 때 잘 기억해 두게나
靑子政堂梅(청자정당매) 정당매(政堂梅) 푸른 열매 맺었을 때.

조식은 나이가 들어서 산천재(山川齋)를 짓고 자신의 학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조식이 62세 때, 마침 산천재 근처에 있는 단속사에 들린 19세의 학승(學僧) 유정과 만나게 된다. 조식은 가르침을 받고 떠나는 유정에게 이 시를 지어 주면 이별을 아쉬워했다.

'산인(山人)'이란 중에 대한 존칭이다. 조식보다 나이가 43살이나 적은 유정에게 이 같은 존칭의 사용으로 보아 유정과 의 만남이 조식에게는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조식의 斷俗寺政堂梅(단속사정당매)

寺破僧羸山不古(사파승영산불고) 절은 깨지고 중은 늙쳐 산은 옛과 같지 않는데
前王自是未堪家(전왕자시미감가) 전 왕조는 이로부터 집안을 단속하지 못했네.
化工正誤寒梅事(화공정오한매사) 조물주가 추위 속에서 지조 지키는 매화일 그르쳤으니
昨日開花今日花(작일개화금일화) 어제 꽃을 피웠고, 오늘도 꽃을 피웠구나.

강회백은 세속을 잊고자 지리산 단속사에서 독서에 열중하였다. 어지러운 조정에서 벼슬 하기보다는 지조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매화나무를 심었으리라. 하지만 젊었을 때의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강회백은 고려 조정에 나가 벼슬을 했다. 정당문학이란 종2품의 높은 벼슬을 지내고,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동북면도순변사 등의 벼슬을 했다. 고려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가 조선 조정에서 또 벼슬을 했다는 것은 지조를 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강회백의 지조를 나무란 사람은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이다. 남명 선생은 지조를 지키지 않고 두 조정을 섬긴 강회백의 처사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남명은 단속사를 찾아 그가 심은 정당매를 보고 시를 지어 강회백의 지조를 비판하였다.

강회백은 매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절개를 닮고자 자신이 공부했던 단속사에 매화나무를 심었다. 하지만 그는 두 조정에서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지조를 최고덕목으로 여기던 선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명이 이를 두고 '어제도 꽃을 피우고 오늘도 꽃을 피웠구나'라고 비판을 한 것이다.

<제3조>

I. 신충에 대하여

20071007 김 보 민

신충은 신라의 문신이다.

신충은 성격이 온유하고 학문이 높았으며 바둑을 잘 두어서 승경왕자와 좋은 적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둑을 통해 우정이 더욱 돈독해 졌고, 승경왕자는 신충에게 후일에도 잊지 않겠다고 잣나무에 맹세했다.

그러나 서기 737년 성덕왕이 재위 36년 만에 별세하고 승경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니 이가 곧 효성왕이다. 효성왕이 왕위에 올랐으나 신충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신충은 임금의 신의 없음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하는 마음은 자꾸만 쌓여서 한이 되어 그 잣나무 밑에 찾아가 《원가》를 지어 항의하자 왕이 뉘우쳐 작록을 내렸다.

739년(효성왕 3)에 이찬(伊飡)으로 중시(中侍)가 되어 효성왕을 보좌했으며, 그 다음 경덕왕 대에도 총신(寵臣)으로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757년(경덕왕 16)에 사임한 김사인(金思仁)의 뒤를 이어 상대등(上大等)에 임명되어 763년까지 재임하였다.

그런데 그가 상대등에 오른 757년은 경덕왕의 전제주의적인 개혁정치가 단행된 해로서, 이른바 9주를 비롯한 지방군현의 명칭을 모두 한식(漢式, 중국식)으로 고쳤으며, 759년에는 중앙관부의 명칭도 모두 한식으로 고쳤다. 그는 경덕왕의 한화정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상대등직에 재임하면서 왕의 개혁정치가 큰 힘이 되었다.

그 후 763년 관직에서 물러나 승려가 되어 단속사(斷俗寺)를 짓고 효성왕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II. 단속사의 유래

20001022 김 보 민

1. 단속사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丹城面)에 있던 절.
- 《삼국사기》에는 이 절의 창건에 관한 두 가지 설이 있다.

748년(경덕왕 7) 왕의 총신(寵臣) 이준(李俊/李純)이 조연소사(槽淵小寺)를 개창(改創)하여 단속사라 하였다는 설과, 763년(경덕왕 22)에 현사(賢士) 신충(信忠)이 벼슬에서 떠나 지리산에 들어가 삭발하고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창건하였다는 설이다.

단속사는 통일신라 이래의 고찰(古刹)로서 고승이 속출하여 1,000여 년의 법통을 이어왔는데, 1568년(선조 1) 유생(儒生)들에 의해 불상(佛像)·경판(經板) 등이 파괴되고, 이어서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불타버린 후 재건되었으나 현재는 폐사가 되어 있다. 이곳에는 현재 보물로 지정된 단속사지 동삼층석탑(東三層石塔, 보물 제72호)과 서삼층석탑(보물 제73호)이 있고, 윗부분이 떨어져나간 당간지주(幢竿支柱)³⁾가 있다.

이 밖에도 신라·고려 때의 이름난 승려들의 부도(浮屠)⁴⁾와 탑비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나

3) 지주(幢竿支柱) 당간을 받쳐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절 입구에 있다.

지금은 몇몇 고승의 비신단편(碑身斷片)의 탐본(搨本)만이 전할 뿐이다.

2. 단속사의 배경설화

신라 34대 임금 효성왕의 왕자시절 성명은 김승경이며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소덕왕후이다. 승경왕자는 성품이 어질고 총명해 덕망과 학식 있는 문인 학자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는데 승경왕자와 가장 친근한 인사 중에 신총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신총은 성격이 온유하고 학문이 높았으며 바둑을 잘 두어서 승경왕자와 좋은 적수였다. 둘이서 대국을 시작하면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몰랐고 두 사람의 우정은 바둑을 통해서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여름철, 날씨가 더울 때면 궁중 뜰 안에 있는 큰 잣나무 아래서 대국을 하며 때로는 시문을 논하고 세상이야기도 했는데 하루는 승경왕자가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다가 신총에게 이런 맹세를 했다.

"나는 그대와의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만약 후일에라도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이 잣나무가 증언을 하리라."

이에 신총은 너무나 감격하여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서기 737년 성덕이 재위 36년 만에 별세하고 승경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니 이가 곧 효성왕이다. 효성왕은 왕위에 오르자 즉각 죄수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리고 법령을 고치고,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새로운 정치를 시작했다. 상대등(영의정자리)에 정종을 임명하고 의총을 종시(벼슬이름)로 삼았다. 그러나 태자시절에 가장 절친했던 바둑친구 신총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신총은 혼자 말하기를 "새 임금께서 즉위한 초기이므로 정무에 바빠서 총망중에 나를 잊고 있을 뿐이지 나를 버릴 사람은 아니다. 기다리자."하고는 일각여삼추로 임금의 부름을 학수고대했으나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임금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신총은 임금의 신의 없음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원망하는 마음은 자꾸만 쌓여서 한이 되었다. 그는 예전에 효성왕이 왕자시절에 자기와 바둑을 두며 맹세했던 그 잣나무 밑에 찾아가서 노래를 지어서 붙였다. 잣나무에 신총의 한맺힌 노래가사가 붙은 뒤부터 이상하게도 나무는 잎이 마르고 가지가 축 늘어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궁중 뜰을 산책하던 효성왕이 예전에 무성한 잣나무가 갑자기 말라죽어 가는 것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신총의 노래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효성왕은 그때서야 크게 깨닫고 국사다망하여 옛날 바둑친구를 잊은 것을 후회하면서 신총을 불러서 높은 벼슬을 주니 말라 죽어가던 잣나무가 되살아났다. 그 후 신총은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 상대등이 되었다가 경덕왕 22년 벼슬을 사직하고 단속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Ⅲ. <원가>의 이해

20041180 진 회 선

物叱乎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潤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4) (浮屠) 이름난 중이 죽은 뒤에 그 유골을 안치하여 세운 둥근 돌탑. 승탑(僧塔).

貌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烏隱第也

질 좋은 잣(栢)	「뜰의 잣이
가을(秋)에 말라 떨어지지(墮) 아니하매	가을에 안 이물어지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너를 어찌 잊어」 하신
낮이(面) 변해버린(改) 겨울(冬)에여	우려했던 낮이 계시온데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달 그림자가 예 못의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가는 물결 원망하듯이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얼굴사 바라보나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여(김완진)	누리도 싫은지고(양주동)

1. 작자와 창작시기 및 장르

- 작자 : 김신충(왕족, 효성왕 잠자시 伊淦, 효성왕 3년 中侍, 경덕왕 16년 上大等, 22년 靑官)
- 창작 시기 : 효성왕 즉위 즈음(통설), 경덕왕 22년 이후(이기백)
- 장르적 성격 : 주술가(잣나무의 수목상징), 연군지사, 서정시

2. 해설

효성왕은 동궁 시절 대궐 안에서 왕족인 신충과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었다. 등극 후에 신충의 중용을 푸른 잣나무를 두고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후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신충이 효성왕의 등극에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처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왕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은 파벌 때문에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기술대로라면 이 작품의 창작 시점이 효성왕 즉위 직후라야 하는데 작품 내용은 벼슬을 하직하고 세속을 벗어나는 시기로 읽혀진다. 제목 ‘원가’ 답지 않게 원망보다는 세사를 떨치고 은둔의 길로 접어든 처사의 읊조림의 정조이다.

이 작품이 제목과 다르게 신충과 효성왕은 원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효성왕과 신충의 관계는 겨울에도 변치 않는 잣나무의 비유이다. 왕이 얼굴을 바꾼 것은 왕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래서 잣의 떨어짐도 익기 전의 상황으로 해석하여 무언가 왕의 의지와는 다르게 작용한 것은 아닐까. 연못에 달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물결이 방해하여 그 모습을 잘 바라볼 수가 없다. 아마도 제3자는 바로 물결로 비유된 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물결이 일어나면 모래는 흩어지는 것이다.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충의 충성심일 것이고 충성을 다할 수 없기에 속세를 버리고 입산하게 된 것이다.

<제4조>

1. 변영로의 생애

20071108 김 보 현

그는 1898년 5월 9일 서울 맹현(孟峴, 종로구 가회동)에서 3남으로 출생하였다. 1904년 서울 재동보통학교에 입학, 그 뒤 계동 보통학교로 전학 하였고, 1910년 사립중앙학교에 입학하였으나 1912년 체육교사와의 마찰로 자진 퇴학하고 만주 안동현을 유랑하다 같은 해 이흥순씨와 결혼하였다.

1915년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영어반에 입학하여 3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쳤고 다음해인 1916년에 중앙기독교 청년회관 영어반 교사로 취임하였고, 그의 나이 22세(1919년) 즉, 3·1운동 때는 YMCA의 구석진 방에서 일경(日警)의 눈을 피해 가며 독립선언서를 영역하여 해외로 발송하였다. 이를 계기로 독립선언서가 구미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에는 동인지 <폐허>에 가담 했고, 같은 해 동경 체류 중 필리핀 변호인단을 초청함에 있어서 한국 변호인단의 통역을 맡기도 하였다. 1921년에는 《폐허》, 《장미촌》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신민공론》 주필을 지내기도 하였다.

1922년 《신생활》에 대표작 <논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는 창작활동 초기부터 과작(寡作)의 시인이었다. 《신생활》·《동명》·《개벽》 등을 통하여 한해에 5, 6편 정도를 발표하였다.

1923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로 부임하였고 1924년 첫 시집 《조선의 마음》이 평문관에서 간행되었는데 거기에는 <버러지도 싫다하올 이몸이>를 비롯한 28편의 시와 수창 8편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시화집은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발행과 동시에 곧 총독부에 의하여 압수되어 폐기처분된 바 있다. 그의 시작품들은 가락이 부드럽고 말씨가 정서적이어서 한때 시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작품 기저에는 민족혼을 일깨우고자 한 의도도 깔려 있었다. 1926년 <자기의 그림자>, <하일시취> 등의 시와 산문을 <동아일보>, <문예시대> 등에 발표하였다. 또 1928년 <긴 강물이 부러워> 등을 <조선지광>, <청년>지에 발표 하였고, 1929년에는 <가신 어머니> <저녁 놀빛> 등을 <新生>, <조선일보> 등에 발표하였다. 1931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 산호세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및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를 지내기도 하였고 1933년에는 동아일보사에 입사, 월간<新家庭(신가정)>지 주간이 되었고, 역시와 평문을 잡지와 신문에 발표하였다. 1934년 부인 이흥순씨와 사별 하였다. 1937년 <해를 나여 그러한지>가 <동아일보>에 발표되었고, 1938년 <현대의 '라오쿠-ㄴ'>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였고, 1941년 <굴껍질을 씹으며>를 <문장>, <조광> 등에 발표하였다. 1946년에 성균관대학 영문과 교수로 취임하였고, 1950년에는 해군사관학교 영어교관으로 부임하였다. 1951년에 호세 리잘의 <나의 마지막 작품>을 <시문학>에 연재하였고, 1952년 서울신문사 취체역으로 취임하였다. 1953년 대한공론사 이사장 <코리안 리퍼블릭>을 주재하여 발간하였고, 수필집 <명정사십년>(서울 신문사)을 간행,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창립 발기인, 초대 위원장이 되었다. 1955년 국제 펜클럽 제 27차 연선대회(비엔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고, 1959년 영문시집 《진달래동산 Grove of Azalea》을 출간, 1961년 3월 14일 서울 종로구 2호 자택에서 질병으로 별세하다.

별세 후 1983년 시집 <차라리 달 없는 밤이 드면>이 정음사에서 4월에 간행되었다. 다음 해인 1984년 수필집 <목마른 기다림을 한잔 술로 채워가며>가 간행되었다.

II. 변영로의 시세계

20041182 최 세 나

변영로, 그의 시작활동은 1918년 《청춘(靑春)》에 영시 <코스모스 Cosmos>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은 1921년 《폐허》제2호에 평문 <메텔링크와 예이츠의 신비사상>, 《신천지 新天地》에 논문 <종교의 오의(奧義)>, 시 <꿈 많은 나에게><나의 꿈은> 등 5편을 발표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1922년에는 《신생활 新生活》에 대표작 <논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 세계는 크게 3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시집 《조선의 마음》이 발간되기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민족 시인으로서의 의식이 잘 표출된 시기로 다음과 같이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 조선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아볼까.
조선의 마음은 지향할 수 없는 마음, 설운 마음!

조선의 마음 中

또한 이 무렵의 대표 작품으로는 <논개>가 있는데 이 또한 민족의식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제2기는 그 뒤부터 광복까지의 시기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인식에서 오는 절망감 속에서도 선비적 절개와 지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 <실제 失題> <사벽송 四壁頌> 등을 들 수 있으며 여러 작품에 화자의 의지를 잘 담아내었다.

꿈과 외롭 사이 태어나서
외롭과 꿈 사이 숨지나니
별이 하늘에 박힌듯이
달이 허공에 달리듯이
꿈과 외롭의 두 틈 사이
잠자코 말없이 살으리라.

失題 中

위는 失題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화자의 절개와 지조가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는 광복부터 죽기까지의 시기로 <뉘은 되었건만>과 같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적 시를 주로 썼다. 또한 번역, 시작활동 이외에도 우리 문단에 영미문학(英美文學)을 소개하고 유고 일문시(日文詩)를 《신생활》에 소개하여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등 시사(詩史)에 공헌한 바가 크다.

또한 변영로가 활동한 1920년대의 시는, 대체적으로 개인적 정서에 민족적 운율을 깊이 있게 결합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의 등장은 우리 시문학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었다. 서구의 여러 문예사조를 받아들이어 새로운 감각으로 민족적 정서를 표출하고, 이를 승화시키는 일은 민족 시인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이기도 하였다.

III. 논개사당과 의암에 대하여

20001311 함 경 식

1. 논개

논개는 임진왜란 때 큰 공적을 남긴 위대한 조선 여인이다. 그러나 논개와 그녀의 가계, 성장과정, 그리고 신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논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21년 어우당 유몽인이 저술한 “어우야담”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헌에는 논개의 가계와 성장과정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많은 억측과 이론이 제기되어 왔다. 논개는 현재의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하였다. 부친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의 집에 의탁하였는데,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돈을 받아 달아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으나 체포되어 장수관아에 수감되었다. 장수현감 최경회의 심리로 재판이 열리고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관비를 자청하여 기생이 되었으나, 현감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되었다. 논개는 후에 최경회의 부실이 되었다. 최경회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를 하였고,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제수되어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하였다. 진주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하였다.

2. 논개사당(의암사, 의기사)

현재의 논개사당은 전라도 장수와 경상도 진주의 두 곳에 있다.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홍길동의 고장을 두고 다투는 모습처럼 어느 지역을 논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논개사당은 흔히 전북 장수지역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의암사로 부르며, 진주지역의 논개사당은 의기사라고 부른다. 장수읍 남산기슭에 위치한 논개사당은 지방 문화재 46호로 지정하여 주논개의 순절을 높이 찬양하는 뜻에서 의암사라 칭했다. 또한 주촌마을의 원래 생가는 1986년 대곡저수지 축조로 수몰되었으며 이곳은 논개 할아버지가 서당을 차렸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2만평에 이르는 생가를 복원한 상태이다.

진주 축석루 바로 옆에 있는 의기사는 논개의 사당으로 영조 16년(1740)에 처음 세워졌으며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용모가 웅장한 논개의 초상화 한 점이 모셔져 있었지만 논개의 영정그림을 그린 김은호 화백의 친일행적으로 지금은 볼 수 없으며, 의암사와 의기사 모두 새로운 논개영정을 공모중에 있다.

장수군의 사당은 1956년에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호남삼강록(湖南三岡錄), 의암주논개사적비 등 사실에 근거하여 장수군내 각계 인사가 성금을 모아 건립을 추진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가 여러 가지 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린 영정을 봉안하고, 의암사(義岩祠)라는 당시 부통령 함태영(咸台永)의 친필 휘호로 현판을 각자하여 걸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부터 의암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2만 여 평에 이르는 대지를 조성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의암사가 창건된 후에 장수군은 매년 9월 9일을 택하여 논개제전을 열다가 1968년부터는 장수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겸하여 대제(大祭)를 지내고 있다.

의암사는 장수 현감 정주석이 주(朱)논개의 충절을 찬양하며 장수 탄생일을 기리기 위하여 1846년 논개생장향수명비를 세운 후 1955년에 군민들의 성금으로 남산에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1974년에 현 위치로 옮겨왔다. 경내에는 "矗石義妓論介生長鄉墅名碑(축석의기는 개생장향수명비)"가 있고, "의암사" 라는 현판이 걸린 사당에는 논개의 영정(김은호 작)이 있으며 외삼문과 내삼문, 충의문이 차례로 있다. 기념관에는 논개의 유품과 연인 최경희 장군의 유품이 진열되어 있다. 매년 음력 9월 3일 주(朱)논개제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열린다.

원래 논개 제례는 1740년에 세워진 의기사에서 진주성 함락일인 음력 6월 29일에 올려지다가 1824년 순조 24년에 의기사를 중건한 이후로 6월 29일 제사를 폐지하고 창열사와 함께 춘추 상제로 바꿨다. 그러다가 다시 1868년 고종 5년 정현석이 진주목사로 부임하여 의기사를 다시 중건한 다음 논개 제례의식을 크게 바꾸었다

3. 의암

의암은 진주성 축석루 암벽 아래 남강 물속에 있는 바위로서 임진왜란 전에는 위험한 바위라 하여 위암이라고 불리었으며, 임진왜란 때 논개가 이 바위에서 왜장을 꺼안고 투신한 후 의리를 세운 바위라 하여 의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바위가 오랜 시일을 두고 조금씩 움직여 암벽 쪽으로 다가섰다가 때로는 강 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2차 진주성싸움으로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적들은 축석루에서 자축연을 벌였다. 이때 관기였던 논개가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깍지 낀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와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꺼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곳이다,

축석루 바로 앞 절벽 아래에 작은 섬처럼 떠 있는 바위가, 논개가 왜장을 꺼안고 뛰어든 의암(義岩)이다. 물 위로 솟은 높이와 너비가 각각 약 3m 정도의 바위로 조금씩 움직여서 축석루 쪽 절벽에 들러붙기도 떨어지기도 한단데, 절벽에 와 닿으면 큰 재앙이 난다는 전설이 있다. 본디 위암(危岩)이라 하였는데, 논개의 충절을 기려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진주성 전투가 남긴 가장 상징적인 사적이 되었다. 이 바위에서 축석루가 바라보이는 쪽에서 전서(篆書)체로 '義巖'이라 새겨 넣은 것은 1625년 진주로 이사온 정력릉(鄭力隆)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논개의 진실을 전하는 최초의 금석문이다.

IV. <논개>와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廟)에>의 비교

20041502 강 유 미

변영로의 '논개(論介)'

거룩한 분노(憤怒)는
종교(宗教)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던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石榴)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魂)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한용운의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南江)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섰는 축석루는 살 같은 광음(光音)을 따라서 달음질칩니다.
논개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論介)여.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향기는 켜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그대는 어디 있느냐.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는 없구나.
나는 황금의 칼에 베어진 꽃과 같이 향기롭고 애처로운 그대의 당년(當年)을 회상한다.
술 향기에 목 마친 고요한 노래는 옥(獄)에 묻힌 썩은 칼을 울렸다.
충추는 소매를 안고 도는 무서운 찬바람은 귀신 나라의 꽃수풀을 거쳐서 떨어지는 해를 얼렸다.
가냘픈 그대의 마음은 비록 침착하였지만 떨리는 것보다도 더욱 무서웠다.
아름답고 무독(無毒)한 그대의 눈은 비록 웃었지만 우는 것보다도 더욱 슬펐다.
붉은 듯하다가 푸르고 푸른 듯하다가 희어지며, 가늘게 떨리는 그대의 입술은 웃음의
조운(朝雲)이나, 울음의 모우(暮雨)이나, 새벽달의 비밀이나, 이슬꽃의 상징이나.
빼비 같은 그대의 손에 꺾이지 못한 낙화대의 남은 꽃은 부끄럼에 취하여 얼굴이 붉었다.
옥 같은 그대의 발꿈치에 밟힌, 강 언덕의 묵은 이끼는 교궁(驕矜)에 넘쳐서 푸른
사롱(紗籠)으로 자기의 제명을 가리었다.

아아, 나는 그대도 없는 빈 무덤 같은 집을 그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름뿐이나마 그대의 집도 없으면 그대의 이름을 불러볼 기회가 없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피어 있는 꽃을 꺾으려면 나의 창자가 먼저 꺾어지는 까닭입니다.
나는 꽃을 사랑합니다마는 그대의 집에 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대의 집에 꽃을 심으려면 나의 가슴에 가시가 먼저 심어지는 까닭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論介)여, 금석(金石) 같은 굳은 언약을 저버린 것은 그대가 아니요,
나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論介)여, 쓸쓸하고 호젓한 잠자리에 외로이 누워서 끼친 한(恨)에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대입니다.
나의 가슴에 '사랑'의 글자를 황금으로 새겨서 그대의 사당(祠堂)에 기념비를 세운들
그대에게 무슨 위로가 되오리까.
나의 노래에 '눈물'의 곡조를 낙인으로 찍어서 그대의 사당(祠堂)에 제종을 올린데도 나에게
무슨 속죄가 되오리까.
나는 다만 그대의 유언대로, 그대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영원히 다른 여자에게 주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얼굴과 같이 잊을 수가 없는 맹세입니다.
용서하여요, 논개여, 그대가 용서하면 나의 죄는 신에게 참회를 아니한대도 사라지겠습니까.

천추(千秋)에 죽지 않는 논개여,
하루도 살 수 없는 논개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이 겨워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워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여.

1. <변영로의 논개>

변영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충신과 열녀들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여 섬세한 전통 정서와 기개 높은 민족정신으로 형상화시킨 시인이다. 이 작품도 이와 같은 그의 시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의 하나로, 임진왜란 때 진주 축석루에서 왜장(倭將) 게다니(主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순국(殉國)한 의기(義妓) '논개'의 우국충절(憂國忠節)을 노래하고 있다. 동시대 <백조> 동인들이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복하여 한숨과 눈물만을 토로한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시를 쓴 데 비해, 그는 민족적 패배감에 젖어 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논개'의 우국충절을 보여 줌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었다.

2. <한용운의 논개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이 시는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순국한 의기 논개의 충혼을 기리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실하게 노래한 추도시이다. 시인은 자신이 민족의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바친 논개의 애인이라는 가정 아래, 논개의 애국적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제 강점하에서 조국의 독립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논개를 추모하는 정을 읊은 것으로, 한용운 시의 특징 중 하나인 역설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그런데 이 시는 논개에 대한 일방적 추모의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

나라, 시의 화자인 '나'와 '논개'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논개'는 과거의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니라, '천추에 죽지 않는' 시공 초월의 존재이면서 당대의 역사적 인간이기도 한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게 하는 정신적 교감과 각성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논개'는 과거 인물이면서 현재적 인물이며, 역사적 존재이면서 당대적 존재이기도 한 역설의 존재이다.

V. 변영로 관련 유적

20071109 김 선 혜

1. 진주 축석루

진주 남강 가 벼랑 위에 장엄하게 높이 솟아 있는 축석루는 남원 광한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평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으로 진주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8호로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이다. 성의 남쪽에 있다하여 남장대, 향시를 치르는 고사장으로 장원루라고 한다. 축석루는 전시에는 장졸을 지휘하던 지휘소로, 평시에는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1365년(공민왕 14)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수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10년에 전보다 웅장한 건물로 중건하여 1948년 국보로 지정된 바 있으나 1950년 6.25동란으로 다시 불탔으며 지금의 건물은 1960년 '진주 고적보존회'가 시민의 성금으로 중건하였다.

2. 진주성 변영로 시비

「논개」(거룩한 분노는 / 종교보다도 깊고 / 불붙는 열정은 / 사랑보다도 강하다 /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 흐르는 강물은 / 길이길이 푸르리니 / 그대의 꽃다운 혼 / 어이 아니 붉으랴)

진주성의 얼굴이라 할 축석문 앞에 세워진 변영로를 기념하는 시비이다. 이곳에 수주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유행가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논개」가 새겨져 있다. 1991년 진주문화원이 건립한 것으로 진주가 총절의 고장임을 상징하고 있다.

3. 변영로의 묘역 [소재지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63-7번지]

변영로 선생의 묘는 고강 부천시 지하철도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고강 아파트 단지 위의 작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변영로의 묘는 그의 기념비의 바로 위에 위치한다. 옆으로 변영로의 형제인 변영태, 변영만의 묘역이 있다. 변영로의 묘에는 상석, 향로석, 혼유석 등의 석물들과 신, 구2기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 앞쪽에는 수주기념비가 위치하고 있는데 기념비의 기단부에는 '수주 변영로선생기념비'라는 음각이 있으며 비신 전면에는 '생시에 못 뵈올 님을 꿈에나 뵈까 하여 꿈 가는 푸른 고개 넘기는 넘었으나 꿈조차 흔들 리우고 흔들리어 그림던 그대 가까울 듯 멀어라 ...'라는[생시에 못 뵈올 임을]의 전반부가 기록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일석 이희승이 짓고 일중 김충현이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삼변, 수주 변영로 선생과 변영만, 변영태 선생을 기리는 삼변기념관을 건립예정(2005년 현재)이다.

4. 수주 변영로 시인 기념비

서울에서 태어난 변영로 시인이 어린 시절 문학의 동지를 틀었던 고강동에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안내판만이 있었던 곳이다. 그의 묘역 앞에는 작은 시비가 서있다. 1998년 7월 2일 수주 변영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수주 변영로 기념 사업회에서 고강동 선산에 있는 묘소에 한국일보 후원으로 세운 것이다.

5. 조선광문회 터

조선광문회는 1910년 한일합병 후 일제가 조선의 서적과 문화재를 강탈해 가는 것에 분개해 최남선 등이 세운 한국고전간행단체. 당시 장지연, 유근(柳瑾), 김교헌(金敎獻) 등이 “민족정신이 담긴 고전을 누구나 사 볼 수 있게 저렴하게 공급하자”며 이곳에서 동국통감, 삼국유사, 열하일기, 지봉유설, 용비어천가, 택리지, 훈몽자회 등을 펴냈다. ‘청계천 광통교 옆 파란색 2층짜리 목조건물’로 불렸던 조선광문회는 또 주시경(周時經)이 한국 최초의 국어사전 편찬을 시도한 한글운동의 발상지이자 민족운동이 모의되고 전국의 애국운동 정보가 모이던 곳이었다. 한용운(韓龍雲), 홍명희(洪命憲) 변영로(卞榮魯), 송진우(宋鎭禹), 안창호(安昌浩), 이승훈(李昇薰), 등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피신처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광문회 건물은 1969년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됐다.

6. 변영로 고향집

1997년 7월에는 오정구 고강본동 313번지에서 수주 변영로의 현대문학 표징 제막식을 가졌다. 이 표징에는 「수주 변영로선생의 고향집」이라는 글씨와 함께 「이 집은 '논개', '고향', '조선의 마음'등 민족 사랑을 감동적인 시로 노래한 수주 변영로(1897~1961)선생이 어린 시절 문학의 동지를 틀었던 고향집이다. 인간적인 멋,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 향기롭게 빛나는 삶의 발자취가 이곳 고향집과 가까운 곳에 영원히 잠든 자리까지 이어져 아름다운 무지개로 떠오르니 이제 뜻 깊은 탄생 1백주년과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선생의 업적과 작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기리고자 한국문인협회가 SBS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현대문학 표징사업의 일환으로 이 글을 새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조>

I. 이형기의 생애

20071110 김 수 빈



이형기는 1933년 1월 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2남 2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소학교 시절부터 이야기책만 읽으며 장차 소설가가 되는 꿈을 가지기도 했다. 그가 진주농림학교에 들어간 것은 졸업하면 군청서기가 보장돼 있다는 아버지의 주문 때문이었는 데,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결핵으로 여의면서 가난에 찌든 집안이 그를 책 속으로 끌고 갔다. 16살에 시인들 얼굴을 구경하러 갔다가 백일장에 참가해 시를 써낸 것이 장원을 했고, 첫일 삼아 보낸 본 문예지의 작품모집

에 추천이 된 것이 그의 17세였다. 그는 스스로도 너무 빨리 시의 뗏에 걸렸다면 지금도 시인은 회자하고 있다. 진주농림학교를 나온 그는 당시 부산으로 피난 와 있던 동국대학의 불교과를 선택해 입학한다. 1951년이였다. 그는 전후(戰後)의 황폐한 시대상과 혼돈의 시대 상황 아래서 전통적인 서정시의 맥을 독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서정시를 한층 밀도 있게 심화시킨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령,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친근한 시 〈낙화(落花)〉는 바로 이러한 그의 시적 특성을 결집시킨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에는 삶과 인생을 긍정하고 자연섭리에 순응하는 서정시를 쓰고, 후기에는 허무에 기초한 관념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감각과 걱정적 표현이 돋보이는 시를 발표하였다.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과를 졸업한 뒤 《연합신문》《동양통신》《서울신문》 기자, 《대한일보》 정치부장·문화부장, 《국제신문》 논설위원·편집국장,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등을 거쳐 부산산업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맡아 일하였다. 주요작품으로는 시집 《적막강산》(1963), 《돌베개의 시》(1971), 《꿈꾸는 한발》(1975), 《절벽》(1998), 《존재하지 않는 나무》(2000), 수필집 《서서 흐르는 강물》, 《바람으로 만든 조약돌》(1986), 평론집 《감성의 논리》(1976), 《한국문학의 반성》(1980) 등이 있다. 2005년 2월2일 향년73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II. 이형기의 시세계

20011129 백 동 호

이형기 시인은 50년대의 신세대 시인으로 촉망받으면서 왕성한 시작활동을 전개하였고, 전후의 황폐한 시대 상황과 혼돈 속에서 전통적인 서정시의 맥락을 독자적으로 계승 발전시

킨 시인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김영랑 조지훈 서정주의 서정시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그의 시들은 전통적인 서정주의와 더불어 독자적인 개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시세계는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시집 『적막강산』으로 대표되는 초기에는 전통적이며 원초적인 정서를 형상화하는데 주력했으며, 『꿈꾸는 한발』, 『풍선 심장』으로 대표되는 중·후기에는 기존의 우리 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주지주의⁵⁾적인 미학을 추구해왔다. 이렇게 그의 작품의 변화를 통해 그의 시 세계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 시집 『적막강산』은 1963년에 간행되었고 『돌베개의 시』는 1971년에 간행되었다. 그의 초기 시 세계는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다. 정통 서정을 보여준 그의 초기 시들은 뚜렷한 정서의 공고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형기의 초기 시집 『적막강산』에는 기다림의 정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젊음의 혈기보다는 시인이 체념과 달관이 나타나 있다. 이형기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슬픔’, 혹은 ‘외로움’의 정서는 젊음의 한 때 느끼게 된 자연 허무감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서는 시 「비오는 날」에 잘 나타난다.

중기 - 이형기는 그의 중기 시에 와서 현격한 변모를 보여주는데, 1975년에 간행된 『꿈꾸는 한발』을 비롯해서 『풍선심장』(1981), 『보물섬의 지도』(1985), 『심야의 일기에보』(1990), 『죽지 않는 도시』(1994)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는 대단한 변화의 미학을 추구해 보여주기 시작한다. 부드러움과 우아함의 정서가 아니라 모순과 파멸의 미학을 추구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형기의 이런 시적 변신은 세계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후기 - 이형기의 시집 『절벽』은 1998년에 간행되었다. 이 시집은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육체적 불운에 대한 응전의 기록이다. 그는 이시기의 시에 이르러 자아의 폐허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폐허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형기 시인의 시세계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본다면 그의 초기 시 세계(『적막강산』, 『돌베개의 시』)의 주된 정서는 슬픔과 그리움이었다. 정통 서정을 구조화해 보여준 그의 초기 시편들은 차츰 세계화의 긴장으로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형기는 시집 『꿈꾸는 한발』에서부터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부정과 대립의 관계로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런 시 시계는 『풍선심장』, 『보물섬의 지도』, 『심야의 일기에보』, 『죽지 않는 도시』로 이어지면서 전혀 이질적인 미학을 추구한다. 악마적인 미학, 복수의 칼, 독에 대한 집착 등은 독특한 미의 세계를 만들어 냈다.

1998년 노년에 간행한 시집 『절벽』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육체적 불운에 대한 투사의 기록으로, 육체적 불운을 통해 세계와 만나는 새로운 문을 찾아내고 있다.

5) 지성 또는 이성인 의지나 감정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상의 입장

Ⅲ. 낙화(落花)의 이해

20061114 박 나 라

 <p><낙화 시비></p>	<p>낙화</p> <p style="text-align: right;">이 형 기</p> <p>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p> <p>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p>
--	---

‘낙화’는 1957년에 창작된 이형기시인의 초기 시다. 1963년 출간된 이형기의 첫 시집 <적막강산>에 수록되어있다. <적막강산>에는 청춘의 붉은 열정을 인내하고 투명한 시선으로 삶을 관조하는 성숙한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이형기의 초기 시에는 젊은 시기에 쓰여졌으나 냉철하게 자기 통제를 하는 시적자아가 나타난다. 서구 낭만주의자들의 자유분방한 열정과 는 다르게 대비되어 삶의 풍파를 다 겪은 노인의 시선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는 시인의 힘들었던 유년의 무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38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되어 말아들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진 시인의 삶이 인내하고 성찰하는 자의식을 성숙시켰을 것이다.

낙화는 6연 19행으로 이루어진 자유시로 시의 제재는 낙화이고 주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이다. 3음보에 바탕을 둔 안정된 율격으로 동어 반복과 ‘-다’로 끝나는 종지형의 연 사이에 명사로 종결되는 연을 번갈아 사용해서 리듬감을 조성했다.

차분한 어조로 이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시는 의미상 기승전결의 구조이다. 낙화의 아름다움을 서술한 ‘기’ 1연은 이 시의 주제와 성격을 집약한 부분이다. 시인은 지는 꽃을 의인화해 모든 인간사의 이별과 더 나아가 죽음의 원리를 통찰해 내고 있다. ‘승’부분인 2~3연은 첫 연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랑의 사라짐과 나의 결별을 꽃이 떨어져 분분히 흩날리는 모습으로 일체화 시켜 보여준다. 4연 ‘전’에서는 녹음의 무성함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 낙화가 필연적인 과정이듯 성숙과 결실을 위해 사랑과 이별의 아픈 체험을 거치면서 나의 청춘도 사라짐을 노래한다. 5~6연 ‘결’에서는 결별이 가져다준 슬픔을 성숙의 과정이라고 믿고 이겨내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와 고뇌가 엿보인다. 특히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이루어지는 이별과 낙화, 성숙해지는 영혼의 슬픈 눈이라는 표현 등이 조화를 이루어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 심미적인 영상으로 잘 형상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IV. <나무>와 <호수>

20051128 윤 속

나무
이형기

나무는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다.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그 아랫마을에 등불이 켜이듯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산다.

철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소란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

나무는
제자리에 선 채로 흘러가는
천 년의 강물이다.

호수
이형기

어길 수 없는 약속처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무와 같이 무성하던 청춘이
어느덧 잊지는 이 호숫가에서
호수처럼 눈을 뜨고 밤을 새운다.

이제 사랑은 나를 울리지 않는다.
조용히 우러르는
눈이 있을 뿐이다.

불고 가는 바람에도
불고 가는 바람같이 떨던 것이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는 신비는
어디서 오는가.

참으로 기다림이란
이 차고 슬픈 호수 같은 것을
또 하나 마음속에 지니는 일이다.

《나무》 이해와 감상

시인들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나 특정한 인간형을 자연물의 형상에 빗대어 표현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이황(李滉)은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에서 언제나 변함 없는 청산(靑山)과 유수(流水)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간도 그와 같은 덕성을 닦아 배움과 학문 정진에 몰두해야 한다고 노래했다. 이 작품도 그러한데 시인은 외적인 사물의 하나인 나무를 인간으로 환치시켜 인식하고 있다. 나무에 인격을 불어넣어 나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나무의 변함이 없는 형상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궤적을 보여 주는 어떤 인간의 면모를 은연중 환기시키고 있다. 즉 한평생을 고독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삶의 품모를 잃지 않으려는 의연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나무를 통해 환기시킨다.

나무라는 구체적인 사물의 외형과 그 이미지를 시적으로 창조하여 인간과 관련된 추상적인 가치를 노래한 이 작품은 '조용하고 슬픈 자세'에 결합된 고독함과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에 결합된 의연함이 인간의 한 존재 방식을 심도 있게 형상화한다. 이렇듯 작가가 나무의 속성을 통해 인간의 삶과 바람직한 삶의 길을 노래하고 있기에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인간의 삶을 내면적으로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호수》 이해와 감상

시인은 호숫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호수는 여전히 밤의 신비로움을 비춰주며 시인의 마음을 뒤흔든다. 밤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호수와 같이 시인은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는 이제 더이상 사랑의 열정에 흔들리며 흐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고요하게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은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던 호수면이 어느 사이엔가 잔잔히 가라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이 일어서는 흔들리는 눈들처럼 되었다가, 바람이 자고 그렇게 갈구하던 욕망이 '기다림'으로 바뀌면서 호수는 차분한 눈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차분하고 투명하면서도 커다란 눈으로 돌아간다고나 할까. 그래서 시인은 '참으로 기다림이란 / 이 차고 슬픈 호수 같은 것을 / 또 하나 마음 속에 지니는 일이다'와 같이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상투적일 수도 있는 '호수'와 '눈'의 비유를 인생의 애잔한 슬픔과 기다림이라는 상황에 연결시켜 몽상적이며 사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좋은 작품이다.

V. 이형기 관련 유적

20071111 김 예 원



< 이형기 ‘낙화’ 시비 >

진주 남강가에 이형기의 ‘낙화’ 시비가 서있다.

제1회 개천예술제 백일장 장원으로 문단에 소개된 이형기 시인은 그 뒤 개천 예술제 심사 위원으로 고향 진주를 종종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병마와 싸우면서 멀리 진주 남강을 생각하며 자신의 시비가 남강가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문학의 기쁨을 다졌던 진주에서의 젊은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분분
한 낙화.../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지
금은 가야할 때//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
않아 열매 맺는/가을을 향하여/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헤어지자/섬세한 손길을 흔
들며/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날//나의 사
랑, 나의 결별/샘 터에 물 고인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나무’ 시비 >

부산 성지곡수원지, 시가 있는 숲에 이형기의 ‘나무’ 시비가 있다.

‘나무는/실로 운명처럼/조용하고 슬픈 자세
를 가졌다.//홀로 내려가는 언덕길/그 아랫마
에 등불이 켜이듯//그런 자세로/평생을 산
다.// 철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소란한 마을
길위에//스스로 펴는/그 폭넓은 그늘...//나무
는/제자리에 선 채로 흘러가는/천년의 강물
이다.//’

<제6조>

1. 연애시인 이성복

20071112 김 유 리



이성복은 1952년 5월 4일 경주시 상주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백일장에 참가하여 글쓰기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글쓰기를 멀리하였다. 그러다 경기고교 재학시절 당시 국어교사였던 시인 김원호를 통해 글쓰기를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이때 <창작과 비평>에 실린 김수영의 시가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1년 서울대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1977년 문학과 지성을 통해 ‘정든 유곽에서’로 등단하였다. 모더니즘적인 첫 시집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는 1980년대 시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화려한 수사와 번득이는 비유는 1980년대의 젊은 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이 시집으로 단번에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평론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뒤 6년 만에 펴낸 <남해금산>은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와 달리, 고통스럽지만 깊고 따뜻한 시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성복 시인의 시적 특징은 고통스러운 세계에 대한 공격적, 화려한 수사, 연상 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섬세한 감수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객관적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는 첫 시집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를 시작으로 <남해금산>, <그 여름의 끝>,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아, 입이 없는 것들>,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시집을 내고, 산문으로는 <네 고통은 나뭇잎하나 푸르게 하지 못 한다>,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했는가>, <꽃핀 나무의 괴로움> 등과 시선집 <정든 유곽에서>, 잠언집 <그대에게 가는 먼 길> 등의 많은 작품을 내고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1982년 김수영 문학상, 1990년 소월문학상, 2004년 제12회 대산문학상 수상을 했다. 이성복은 현재 계명대 불문과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II. 해매는 사람

- 이성복의 시 세계

20051131 이 범 희

사람이란 존재는 세상 구석구석을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생각하며 처리하여 답을 만들어낸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언어를 사용하여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 살아가며 구차하게도 계속하여 의미를 찍어내고 이 행위를 통해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려 한다. 의미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일회성 몰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인이란 존재는 이런 몰핀을 마구 풀어 쓰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감각적으로 텍스트란 매체를 통해 풀어내는 이들은 불행하다.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주사해야만 하는 의미라는 몰핀, 이성복이란 사람은 결국 중증 몰핀 중독자였다. 몰핀의 환각증세, 그의 환각은 세상이다.

이성복은 불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을 인지하고 의미화하자니 그가 본 현실은 밝지 않았나보다. 첫 세팅을 좋지 않게 시작한 마약과 같이 모든 것이 눈에 밝힌 듯 시를 썼다. 세상의 사사로운 문제까지 인지하고 마치 약기운이 도는 동안의 헛소리처럼 주절주절 세상을 담아낸다.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환각들, 추억인지 단순한 기억의 단편인지 알 수 없는 조각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지기도 한다. 주절주절 말을 더듬어가며 환각에서 헤매다. 기억의 이곳저곳을 헤매며 수많은 자신을 만나 이야기하듯, 뭔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떠돈다.

허나 그는 그렇게 환각 속을 헤매기만 하진 않았다. 수차례의 의미라는 몰핀 투여로 인해 내성이 생겼을까, 혹은 환각의 세상을 만들다 주워 모은 기억의 단편이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약인 시속의 세상은 변해간다.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긴 하지만 보다 범위가 축소되며 새로운 약을 만든다. 어쩌면 벽에 부딪혔을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의미만으론 자신이란 의미를 유지시키기가 어려웠던 탓일까, 그는 보다 더 안정적인 도피처를 찾아가려 했다. 보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둘러보며 역시 무언가를 찾아 떠돈다. 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건지, 보다 포근한 것을 찾아가는지 분간하기 힘들지만 딱히 결정하기 보단 두 가지를 모두 원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자신과의 대화, 그 자신은 곧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비춘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그의 시들은 뒤로 갈수록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보이는 것은 같고 길을 찾지 못한다. 첫 세팅이 좋지 못한 약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성복은 테잎을 잘못 끊은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갈래의 길을 헤롱거리며 헤치고 지나왔지만 사실 모든 길은 한곳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자신이 자신의 존속을 위해 만든 의미라는 몰핀을 맞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꾸며진 환각을 만들었을 뿐, 모든 것은 자신의 미래 이미지이다. 비추어진 세상도 자신, 단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진 모조품이다.

왜곡된 기억이란 이미지들과 달린 세상, 애처로운 손길을 세상에 내미는 그의 세상은 단순한 환각에 불과했다. 의미라는 몰핀의 약효에 의해 만들어진…….

III. <남해 금산>의 이해

20041127 김 주 환

남해 금산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다. 그 산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바위를 상상해 본다. 돌마다 슬프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어딘가에는 누구나의 애달픈 사랑 하나쯤 서려 있을 것 같다. 금산을 오르며 시인은 먼 옛날부터 이루지 못한 사랑을 돌덩이처럼 인생에 얹고 살아간 이들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다. 거기엔 자신의 사랑도 자리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에 그의 가슴은 그대로 '남해 금산'이란 제목으로 한 편의 시가 되었다.

남해 금산 -이성복-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었다. 돌처럼 굳어버린 여자의 사랑, 돌을 만든 여자의 사랑, 돌 속에 갇혀 버린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이 시는 시작된다. 누군가 구제해주지도 못할 만큼의 그야말로 돌 같은 사랑, 그 막막함이 남해 금산을 덮고 있다.

몇 천 년을 한 곳만 지켜도 고떡없을 것 같은 바윗돌, 그 안에 묻혀 있는 사랑 또한 얼마나 기나긴 세월을 한 맺혀 지내왔을까. 금산에 오른 이의 가슴은 그 한을 알 것 같다. 돌에 묻힌 여자는 그 한 서린 사랑 때문에 그대로 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한여름, 여자의 사랑은 비에 씻겼다. 그 눈물이 비에 섞여 떠나가는 날, 이미 여자를 따라 기꺼이 돌 속까지 따라 들어간 화자는 끝내 함께 하지 못한 채 돌 속에 남겨졌다. 딱딱하고 어두운 사랑 안에서, 여인의 슬픈 사랑조차 없는 공간 속에서 하늘로 가버린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그러나 화자의 마음은 마냥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쓸쓸한 여운으로 남는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돌에까지 따라 들어갔던 화자의 마지막은 금산을 덮고 있었던 그 막막함을 남해에 풀어내고 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위 끝으로 그녀를 그리워하고 밤에는 바다에 비친 달을 보며 그 달 따라 검푸른 물속에 잠겨버리는 것이다.

수많은 시인들이 해와 달, 그리고 산, 돌을 노래하고 계절을 시로 적고 사랑을 읊조린다. 그 각각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가. 따라서 그 모두를 품어내어 시로 탄생시키는 일은 매우 힘이 든다. 그런데도 이성복 시인은 짧은 시 안에 참 많은 자연물들을 끌어와 사랑을 노래하였다. 그만큼 남해 금산이 바다와 하늘과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7조>

1. 김만중(金萬重)의 생애

20071113 김 정 현

김만중(1637-1692)은 호가 서포(西浦)이며 정축호란 때 그의 어머니가 강화도를 빠져나 오다 배위에서 낳았다 하여 김선생(金船生)이라고도 한다. 그는 조선조 예학(禮學)의 대가인 김장생의 증손이요, 충렬공 김익겸의 유복자이며,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아우로 숙종의 초비(初妃)인 인경왕후의 숙부이다. 그의 어머니는 해남부원군 윤두수의 4대손이며, 영의정을 지낸 문익공 이방(李昉)의 증손녀이고, 이조참판 윤지(尹遲)의 딸인 해평윤씨이다. 그는 어머니의 남다른 가정교육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김익겸은 일찍이 정축호란(1637)때 강화도에서 순절하였기 때문에 형 김만기와 함께 어머니 윤씨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윤씨부인은 본래 가학(家學)이 있었기 때문에 두 형제들이 아비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한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

그 좋은 예로 궁색한 살림 중에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서책을 구입함에 값의 고하를 묻지 않았고, 또 이웃에 사는 홍문관서리를 통해 책을 빌려내어 손수 등사하여 교본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소학》·《사략 史略》·《당률 唐律》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같은 여러가지 면들, 즉 연원있는 부모의 가통(家統)과 어머니 윤씨의 희생적 가르침은 훗날 그의 생애와 사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훈도를 받고 14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6세에 진사에 일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뒤 1665년(현종 6)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료로 발을 디디기 시작하여 1666년에 정언(正言), 1667년에 지평(持平)·수찬(修撰)을 역임하였고, 1668년에는 경서교정관(經書校正官)·교리(校理)가 되었다.

1671년에는 암행어사로 신정(申晳)·이계(李穡)·조위봉(趙威鳳) 등과 함께 경기 및 삼남지방의 시정득실(時政得失)을 조사하기 위해 분견(分遣)된 뒤 돌아와 부교리가 되는 등, 1674년까지 헌납·부수찬·교리 등을 지냈다. 그러다가 1675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있을 때 인선대비의 상복문제로 서인이 패배하자 관작을 삭탈 당했다. 30대의 득의의 시절이 점차 수난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의 형 만기도 2품직에 올라 있었고 그의 질녀는 세자빈에 책봉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2차 예송(禮訟)이 남인의 승리로 돌아가자, 서인은 정치권에서 몰락되는 비운을 맞게 된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680년(숙종 6)에 남인의 허적과 윤휴 등이 사사(賜死)된 이른바 경신대출척에 의해 서인들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그는 이보다 앞서 1679년 예조참의로 관계에 복귀하였다.

1687년에 다시 장숙의 일가를 둘러싼 언사(言事)의 사건에 연루되어 의금부에서 추국(推鞠)을 받고 하옥되었다가 선천으로 유배되었다. 1년이 지난 1688년 11월에 배소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으나 3개월 뒤인 1689년 2월 집의(執義) 박진규, 장령 이윤수 등의 논핵(論劾)을 입어 극변(極邊)에 안치되었다가 곧 남해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같이 유배가게 된 것은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 민씨의 여화(餘禍)때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의 어머니인 윤씨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끝에 병으로 죽었으나,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1692년 남해의 적소에서 56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II. 김만중의 국문 문학관

20071114 김 주 연

김만중은, 문학은 도(道)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서포만필'의 다음 글에서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백사 이공(이항복)이 북청으로 귀양을 갈 때 철령을 지나면서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삼아 실어다가 / 임 계신 구중궁궐(九重宮闕)에 뿌려 볼까 하노라.'라는 시조를 지었다. 하루는 광해군이 뒤뜰에서 잔치를 하며 노는데, 이 시조를 노래하는 궁녀가 있었다. 광해군은 "처음 듣는 노래로구나. 누가 지었더냐?"하고 물었다. 궁녀가 "장안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모의 작이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하니, 광해군은 이 시조를 다시 부르게 하고 처연히 눈물을 흘렸다 한다. 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와 같다.

광해군에게 도(道)를 역설한 이항복은 배척되었지만, 광해군을 생각하는 심정을 노래한 이 시조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김만중은, 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지만, 노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포 김만중은 국어로 표현된 문학이 참문학이라는 국문 문학론을 펴서 국어 존중론을 펼쳤다. 그러므로 그의 국문 문학론은 국문학사상 국어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뛰어난 평론 문학관이라 할 수 있다.

서포 김만중은 한문학을 숭상하던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우리말의 가치를 높이 인식할 줄 알았던 선각자였다. 그는 우리에게도 생각이나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글이 있는데, 우리말을 버리고 중국의 말을 쓰는 것은 마치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처럼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革新)적인 주장을 하였다.

우리말에 대한 이러한 가치 인식을 토대로 그는 학사대부의 한시보다 초동급부의 노래소리가 훨씬 더 진실한 것임을 간파했다. 우리 민요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송강의 가사 중 '후미인곡(속미인곡)'이 특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 순연히 우리말을 구사하여 노래한 작품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말의 가치를 중시한 서포의 이러한 생각은 국문 문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문학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우리말 문학의 가능성과 그 훌륭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천박하게만 여겼던 우리말 문학에 대한 생각에 일대 전환을 일으켜 민요와 같이 진솔한 생활 감정을 우리말로 담아내는 문학이야말로 참 문장임을 널리 천명했던 것이다. 서포의 이러한 생각은 실로 민족정신의 자주적 발양이며, 국학정신의 선각자적 선언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 부분은 송강(松江)의 가사인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전후 사미인곡을 평한 부분으로, 송강의 가사를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이소(離騷)'라 하여 우리나라 시가의 최고라 했으며, 거듭 '좌해 진문장'이라 하여 우리나라의 참문장은 위에 열거한 세 편의 시가라 했다. 또한, 그중에서도 순수 국어로 표현된 후미인곡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했으며, 서포는 송강의 가사를 평하면서, 시화(詩話)의 전통에 따라 시어의 희롱에 그치지 않고, 나라말의 묘미를 살린 것이면 어떤 나라 시라도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확실히 했다. 곧 언어는 제각

기의 색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살려야만 좋은 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서포의 주체성 강조는 문학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 지금처럼 모국어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태를 비판적 안목으로 한번 눈여겨 볼만하다.

III. 구운몽의 저작 시기와 장소

20037170 함 정 석

그동안 구운몽은 경남 남해 유배 시기(1689-1692)의 저작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러다가 김병국 교수가 『서포행장』을 찾아냄으로써 선천 유배 시기(1687-1688)의 작업이 판명되었다.

37세(1673) 남인 許積(허적)의 영의정 자격을 논하다가 金城(금성, 강원)으로 유배
44세(1680) 남인 許遣(허견, 허적의 서자)의 역모 사건으로 남인 귀양 및 파직 (庚申大黜陟 경신대출척) 서인 재집권. 서포도 예조판서로 복직
51세(1687) 仁敬王后(인경왕후, 김만기의 딸)의 승하 후에 계비로 들어온 인현왕후 민씨의 양해 하에 궁인 장희빈 후궁이 됨. 많은 작폐. 김만중이 간하다 宣川(선천)으로 유배당함
53세(1689) 장희빈의 아들을 왕자로 정하기로 하였으나, 서인 반대. 서포 南海(남해)로 圖離安置(우리안치). 정권은 다시 남인 수중으로 (己巳換局 기사환국)
56세(1692) 모 윤씨 사망(1689. 12월). 서포는 장례에도 참여 못한 채 배소에서 哀哭斷腸(애곡단장)하다 사망. <정경부인윤씨행장>은 이 곳 배소에서 죽기 전에 지음.

1. 남해 저작설 근거 : 李縉(이재, 1680-1746)의 「三官記(삼관기)」
以夫人好書 이부인호서 : 부인(김만중 어머니 윤씨)이 책을 좋아하여
聚古史異書 취고사이서 : 옛날 역사책 희귀한 책을 모은 것이
以至稗史雜記 이지패사잡기 : 소설책(패사)와 잡기에까지 이르렀다.
日夜談說左右 일야담설좌우 : 밤낮으로 좌우에 놓고 이야기하며
以資一笑... 이자일소 : 한바탕 웃고 넘기는 자료로 삼았다. (중략)
始公赴謫也 시공부적야 : 처음에 공이 귀양 갈 때
夫人怡然曰 부인이연왈 : 부인이 태연히 웃으며 말하길
嶺南之行 *영남지행 : 영남에 가는 건 → 여기서 영남은 남해를 말한다. 이것이 남해 저작설의 근거다. 그러나 「정경부인윤씨행장」에는 영해(嶺海)로 나와 있다. 영남은 이재의 오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前修所不免 전수소불면 : 전의 선배들도 면하지 못했다.
行矣自愛 행의자애 : 가거든 스스로 몸을 아끼고
勿以我爲念 물이아위념 :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聞者莫不出涕 문자막불출체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자들이
稗說有九雲夢者 패설유구운몽자 : 패설(소설)에 구운몽이란 게 있는데
卽西浦所作 즉서포소작 : 즉 서포(=김만중)가 지은 것이다.
大旨以功名富貴 대지이공명부귀 : 그 큰 뜻(줄거리)은 부귀공명을
歸之於一場春夢 귀지어일장춘몽 :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라 했다.
要以慰釋大夫人憂思 요이위석대부인우사 : 요는 돌아가신 부인의 근심됨 생각을 위로하고

풀어 주려한 것이다.

2. 남해 저작설이 오류라는 근거 : 「貞敬夫人尹氏行狀(정경부인윤씨행장, 1690작)」

是年 시년(숙종 13, 1687)秋 추 : 이 해 가을에

萬重以言事竄西塞 만중이언사찬서새 : 내(만중)가 조정에서 한 말로 인해 서쪽 변경 지방(평북 선천)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大夫人送之城外曰 대부인송지성외왈 : 어머니가 성 밖까지 나가 배웅하며 말하길

嶺海之行 영해지행 : 영해에 가는 것은 → 여기서 영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前修所未免 전수소미면 : 선배도 면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3. 선천 저작설로 확정 : <西浦行狀(서포행장)>

(1) 숙종 13(1687) 서포가 장희빈 관계로 간헐다가 선천으로 유배되는 사건에 이어

‘又著書寄送 우저서기송 : 또 책을 지어 부쳐드리니

俾作消遣之資 비작소견지자 : (어머니의) 근심을 덜게 하는 자료로 삼으려 한 것이다.

其旨以一切富貴繁華爲 기지이일체부귀번화위 : 그 뜻은 일체의 부귀영화를

都是夢幻 도시몽환 : 모두 꿈이라 한 것이다.

亦所以廣其意 역소이광기의 : 그 뜻은 넓혀서

而慰其悲也 이위기비야 : 그 슬픔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다.

→ 김만중이 구운몽을 지어 어머니께 보내드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IV. 정경부인윤씨행장(貞敬夫人尹氏行狀)의 이해

20021120 노 재 화

17세기 국문학을 대표하는 문사들 가운데 서포 김만중(西浦 金萬重, 1637~1692)은 소설 사적으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만중이 이렇게 훌륭한 문사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인 윤씨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서포에 대한 사랑이야 무한하였겠지만 서포의 어머니를 향한 효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지극하였다.

윤씨부인(尹氏夫人, 1617~1689)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한다. 그녀의 할머니 정혜옹주는 이런 손녀를 친히 안아서 기르고 『소학(小學)』을 입으로 외워서 가르쳤다고 한다. 윤씨가 열네 살이었을 때에 김만중의 아버지 김익겸에게 시집을 왔는데, 정혜옹주가 그녀에게 “너희 시집은 예법하는 집안이라 행여나 부도(婦道)를 어김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훈회(訓誨)했다고 한다.

윤씨부인은 보기 드문 현부인이었다. 그녀는 김만중과 그의 형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모시며 집안일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손수 천을 짜고 수를 놓아서 조석을 잇게 되었다. 그러나 자식들의 공부가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항상 태연한 모습이었다. 또한 가정형편상 아이들에게 따로 선생님을 둘 수가 없어 자신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항상 지극했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엄하게 하였다. 두 아들이 벼슬에 올라 집안 살림이 윤택해졌지만 항상 검소한 생활을 바탕으로 책임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자식들뿐 아니라 손자들의 교육도 직접 담당한 그녀는 김만중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당시에도 손자나 증손자들을 훈계

하여 학업을 게을리 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 그녀는 귀양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근심과 지병이던 담천병(痰喘病)이 재발하여 병석에 눕게 되고, 결국 그 후로 김만중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선비정경부인윤씨행장(先妣貞敬夫人尹氏行狀)>은 현부인의 전형을 그려내었다. 김만중은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들은 후 1690년 8월에 행장을 지었다. 이 작품은 모친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나타낸 행장이면서 서포 자신의 지극한 효행의 총결이며, 못다한 효심을 응축시켜 놓은 것이다. 행장에는 윤씨가문의 내력에서부터, 자녀교육, 몸에 베어 있는 예와 효의 정신, 여자로서의 행실과 성품에 대하여 윤씨부인의 생애와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특히 김만중은 그가 어머니와 함께 겪었던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그가 알리고 싶은 일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자식들을 훈계하는 내용들을 통해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기 위한 비장하고 처절한 결의를 알 수 있다. 행장 안의 내용을 통해 자식이 귀양을 가고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의연한 태도와 부동의 자세를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서포의 어머니 윤씨부인은 문자 그대로 여인 중의 군자였으며 매우 훌륭한 현부인이었다. 고난과 슬픔을 참고 견디며 자식을 훌륭히 양육하고 교육시켜 높은 벼슬길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윤씨부인의 아래서 김만중은 그 자애로움이 넘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단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겠지만 그는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효성을 어머니에게 전부 쏟아 바칠 수가 있었으며, 그 효성은 지극하고 지극하여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 행장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V. 김만중 관련 유적지

20071136 조 용 호

서포 김만중은 인조 15년인 1637년에 유복자로 태어났고 출생지는 미상이다. 1692년 4월에 유배지에서 사망하여 그곳에 묻혔다가 9월에 경기도 광주로 이장되었고, 1711년에 다시 황해도 장단으로 이장되었다. 그래서 현재 찾아 볼 수 있는 유적지는 남해의 유배지밖에 없다.



<1. 노도 김만중 휴허지 기념비>

노도에는, 서포 김만중이 당파 싸움의 와중에 53세 되던 1689년에 박진규, 이윤수 등의 탄핵으로 유배되어 3년간 지내다 죽은 곳으로 그가 살던 초가집 터와 묘소 터와 우물 그리고 유허비가 있다. 김만중은 이곳에서 유배살이 하면서 스스로 옹달샘을 파고 물을 마셨으며 솔잎과 파죽을 먹으며 근근이 삶을 이어가다가 56세에 생애를 마감하였다.



노도는 옛날부터 배의 노를 많이 생산하였다고 하여 노도(櫓島)라고 불린다. 또한 섬의 생긴 모양 때문에 ‘샷갯섬’이라고도 불리는 경남 남해군 옹강만 입구 상주면 벽련리 소재의 작은 섬이다. 김만중의 마지막 유배지이기도 하다.

노도 사람들은 서포를 스스로 생업 꾸리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늘 바닷가에 나와 하염 없이 앉아 있거나 책을 쓰는 일에만 빠져들었기 때문에 ‘목고노자 할배’라고 불렀다 한다.

김만중은 이곳에서 1689년부터 3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생애는 당시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유배와 복직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그는 늘 어머니를 한 없이 그리워하며 이곳에서 <경정부인윤씨행장>,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등을 쓴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구운몽은 선천 유배지에서)

이곳은 바다 바닥이 흰히 들여다 보일만큼 물이 맑고 갯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바다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근래에 들어 김만중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간다고 한다.

<제8조>

1. 박재삼의 생애

20061141 하 강

박재삼(朴在森 1933~1997)

- 1933년 박찬홍과 김어지의 차남으로 일본 동경에서 출생.
- 1936년 귀국하여 어머니의 고향인 경남 삼천포시에서 자리를 잡음.
- 1940년 삼천포초등학교에 입학.
- 1946년 삼천포여자중학교에 사환으로 있을 때 김상옥 선생을 만나 감화를 받고 시 창작.
- 1947년 삼천포중 병설 야간중학교에 입학.
- 1948년 교내신문 『삼중(三中)』 창간호에 동요 「강아지」, 시조 「해인사」를 발표.
- 1949년 주간 중학교로 옮김. 제1회 영남예술제(개천예술제) <한글시 백일장>에서 시조 「촉석루」가 차상으로 입상. 당시 장원이던 이형기와 친교를 맺음.
- 1953년 삼천포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 모윤숙의 추천으로 시조 「강물에서」가 『문예』지 11월호에 발표.
- 1954년 은사 김상옥 선생의 소개로 현대문학사에 취직, 창간 준비를 시작함. 당시 주간은 조연현, 편집장은 오영수, 편집사원으로는 임상순, 김구용이 있었음.
- 1955년 『현대문학』 추천을 통해 시조 「섭리(攝理)」, 시 「정적(靜寂)」(서정주 추천)이 발표되어 김관식, 신동준과 함께 등단. 직장을 마련한 후 고려대학 국문과에 입학(3년 중퇴).
- 1957년 시 「춘향이 마음」으로 『현대문학』 신인상을 수상.
- 1962년 처녀시집 『춘향이 마음』(신구문화사) 간행.
- 1964년 현대문학사를 그만두고 『문학춘추』 창간과 함께 입사하였으나 1년 만에 퇴사.
- 1965년 월간 『바둑』지 편집장으로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대한일보』 기자 생활 시작(3년 동안 근무).
- 1969년 삼성출판사 입사.
- 1974년 한국시인협회 사무국장 피선.
- 1977년 제9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제1수필집 『슬퍼서 아름다운 이야기』(경미문화사) 간행.
- 1982년 제4수필집 『셋길의 유혹』(태창문화사) 간행. 제7회 노산문학상 수상.
- 1983년 수필선집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오상) 간행. 『바둑한담』(중앙일보사) 간행. 제7시집 『추억에서』(현대문학사) 출간. 제10회 한국문학작가상 수상.
- 1986년 제10시집 『찬란한 미지수』(오상사), 제6수필집 『아름다운 삶의 무늬』(어문각), 제7수필 『차 한 잔의 광세』(자유만학사) 간행. 중앙일보 시조대상 수상.
- 1987년 시선집 『바다 위 별들이 하는 짓』, 『울음이 타는 가을강』, 『가을 바다』, 제11시집 『사랑이여』(실천문학사) 간행. 제2회 평화문학상 수상.
- 1988년 시선집 『햇빛에 실린 곡조』 간행. 제7회 <조연현문학상>을 수상.
- 1991년 제13시집 제13시집 『꽃은 푸른 빛을 피하고』(민음사) 간행. <인촌상> 수상.
- 1997년 6월 8일 10여 년의 투병 생활 끝에 별세.

II. 박재삼의 시 세계

20071116 하 강

박재삼은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소년기의 이 가난 모티브는 박재삼 시의 주요한 특질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또한 박재삼은 폭주와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면서 병석에 눕고 일어서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시에 질병 모티브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박재삼의 시에 나타나는 ‘가난 모티프와 질병 콤플렉스’는 그의 천부적인 감성을 토대 위에서 슬픔과 한의 정서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추억에서>의 시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가난했던 한스러움을 시에 담아 노래했으며 이는 가난모티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다.

박재삼의 시 세계는 시대와 정서별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한과 그리움을 노래

첫 단계는 한과 그리움의 정서가 주요 모티프가 되어 있는 점이다. '한'의 정서는 대개 두 가지 진원지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사랑이나 죽음 따위의 실존적이며 다소 관념화된 아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년 시절의 뼈저린 가난이라는 경험적 현실서 비롯된 서러움이다. 작품 중에는 시집 <춘향이의 마음, 햇빛 속에서, 천년의 바람>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의 시 곳곳에 등장하는 ‘바다, 가난, 햇빛, 섬 바람, 누님’ 등은 그에게 한의 정서로 침착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바다와 하늘을 벗 삼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 생활인의 삶을 노래

두 번째 단계는 생활인의 삶을 노래해 보여준 <어린것들 옆에서, 뜨거운 달, 비 듣는 가을나무> 등에 생활인의 정한이 노래되어있다. 이 시기에 박재삼의 시에 드러나는 생활인의 정한은 삶의 곤궁함과 병고로 인한 괴로움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가장으로서의 책무와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해 내기 시작하였다. 그가 파악해 내는 책무와 인간관계들은 모두가 힘겹고 곤궁한 것들이었지만 박재삼은 그런 시적 대상들을 포용 하면서 화해에 이르고자 한다. 이는 박재삼의 중기 시에 해당한다.

3. 유년의 추억과 삶의 허무를 노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생의 한계를 자각한 자의 자기성찰을 통해 도달한 체념과 허무의 정서가 노래되고 있다. 작품 중에는 <추억에서 대관령 근처, 내 사랑은, 찬란한 미지수>등이다. 유년의 추억과 삶의 허무를 노래한 것은 박재삼의 후기 시에 해당한다.

박재삼의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어에 대한 친화력과 재래적인 정서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다. 1950년대 초반의 시들이 관념어와 외래어의 남발로 인해 한국어의 정서적 질감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박재삼 시의 생기 있는 어조와 구어에 대한 감각을 돋보이게 한다. 그는 한국 서정시의 문법에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고 근대적 현실에 대한 미적 거부를 보여 준 시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서정시를 그 안으로부터 갱신하여 그 미학적 현대성을 보여 준 시인으로 평가된다.

III. 천년의 바람의 이해

20011147 이 상 구

천년의 바람 / 박재삼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쉴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아, 보아라 보아라
아직도 천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바람은 천년동안 쉴 새 없이 불고 있다. 긴 세월동안 쉴 새 없이 부는 바람을 생각해보면 매우 지루하고 고된 일일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과 고통들, 그것들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을 시인은 단 몇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 소나무는 십장생 중에 하나로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는 절개와 기개의 상징으로서 천년동안 바람과 동무가 되어준 사이로 이해할 수 있다. 천년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도 그러하지만, 소나무를 천년동안 간지러움을 태우는 바람을 표현한 것은 둘이 상징하는 바를 절묘하게 접목시켜 그 속에 상징하는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로인해 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의 합일된 깊이 있는 초월적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삶도 좋지만 바람처럼 지치지 않는 삶에, 시인은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보편적으로 시에서 바람이 상징하는 바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비유하는데 많이 쓰인다. 하지만 시인은 소나무를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면서 자연의 깊은 정취와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천년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를 감상한 후에 항상 우리 곁에서 간지러움을 태우는 바람을 느낄 때마다 삶의 고통과 욕심을 조금은 덜어주는 박재삼 시인의 천년의 바람을 느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람’과 ‘사람’, 시인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단어의 겉모습은 매우 흡사하다. 언뜻 들으면 둘이 혼동되기도 한다. ‘바람’과 ‘사람’을 병치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람’은 결코 볼 수 없는 무형물이지만 비슷해 보이는 글자모양처럼 그와 같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인의 착각에서 빚어낸 절묘한 시적 조화라 할 수 있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두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껴보면 무엇이 생각날까? 이 시를 아는 이라면 천 년 전에 소나무의 가지를 간질이는 바람이 천년 후에도 이렇게 지치지 않고 어느 소나무의 가지를 지나 내 뺨에 간지러움을 주고는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무심코 지나쳐버리지 말고 천 년 전의 바람을 느껴보며, 쉴 새 없이 부는 바람과 탐을 내지 않는 바람을 닮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떨까.

IV. 울음이 타는 가을강

20061103 강 정 우

박재삼의 시는 순수 한국어와 ‘한’이라 불리우는 가슴 속에 가라 앉혀 굳어진 슬픔과 비애, 전통 한국의 감정을 어학적, 예술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작품은 시의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수사적인 느낌과 한이라는 전형적인 감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착색이 짙은 구어체를 채택하여 친숙하고도 은밀한 대화, 독백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삶과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구체화한 완전한 세계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전형적인 우수와 개인적인 불완전감으로부터 방황하는 시는 궁극적인 위로와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근본 원리를 발견한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살펴보면 소멸해 가는 생명의 애수를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와 융합시켜, 타령조의 리듬과 독특한 방언적 어미를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섬세한 뉘앙스를 풍기는 소박하고 평이한 시어와 소곤거리는 듯한 나직한 가락으로 전통적 정한(情恨)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특히, ‘-고나’ ‘-것네’와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시조와 시를 함께 쓰는 시인다운 말솜씨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으며, 현대시와 옛 노래 사이의 문체상 단절을 극복하고 여성스런 가락을 창출하고 있다.

화자는 제사를 치르기 위해 큰집이 있는 고향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그에 얽힌 어린 시절의 슬픈 추억을 반추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한(恨)의 정서는 단순히 관념화되고 보편화된 정서가 아니라, 사랑의 실패를 겪은 화자의 체험 속에 녹아 있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묘미는 저녁놀이 울음으로 환치되어 있는 데 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강’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적 이미지를 내면의 정서로 끌어들이며 ‘울음이 타는’이라는 표현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연의 정경과 시인의 정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녁’은 ‘가을’과 함께 소멸·종말의 의미를 지니며, ‘가을’과 ‘놀’은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의 슬픔을 노래하기에 적당한 배경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 본원의 사랑의 슬픔과 고독과 무상함에 대한 한을 지닌 화자의 가슴에 저녁놀은 단순한 저녁놀이 아닌, 울음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이처럼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정한의 정서를 더욱 감각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이 시는 우리 서정시의 전통 속에서 중요한 시사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경은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문화적 불모성이 심화되었고, 역사와 현실, 개인과 사회, 시대와 공간 사이의 역학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적 인식의 필요성을 추구하였다.

특징은 전쟁 체험과 전후의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적 소재의 영역 확산과 현실 참여적인 주지시와 전통 지향적인 순수시의 대립, 그리고 실존주의의 영향에 따른,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통찰 및 휴머니즘의 회복 강조하였으며, 풍자와 역설의 기법과 현실에 대한 지적 인식을 통한 비판 정신의 첨예화하였다.

V. 박재삼시인의 관련 유적

20071117 이 상 구

1. 박재삼의 노산공원

노산공원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금동 해안에 있으며, 1956년 사천이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시내 남쪽 노산에 마련한 공원이다. 노산공원에는 **박재삼의 시 [천년의 바람]이 새겨진 시비**가 있으며, 충무공 이순신 동상과 1961년 12월 31일에 제막된 삼천포 출신 355위의 호국영령 충훈탑, 체력단련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충훈탑 앞 광장에서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이밖에 노산공원의 자랑 거리로는 동쪽에 독섬이라는 무인도가 있어 파도에 침식된 기암절벽과 우거진 노송이 장관을 이루며, 산과 사천 시가지, 삼천포항, 한려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주변에는 남일대 해수욕장, 다솔사, 대방진굴항, 동백섬, 산성공원, 선진리성, 코끼리바위, 학섬 등의 관광지가 있다.

2. 박재삼 거리

박재삼 거리는 사천시와 ¹⁾박재삼문학기념사업회가 공동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서금동 신 도원장 쪽 사거리부터 노산공원 입구의 박재삼 선생 생가를 포함한 팔포매립지 관광안내도까지를 잇는 약 500m의 구간이며, 박재삼 거리에는 안내표지판, 조형물, 시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박재삼 문학제

박재삼 문학제는 그를 사랑하던 문학인이나 고향의 후배 문인들이 뜻을 모아 돌아가신 1주기인 1998년 6월 8일 박재삼 추모 문학제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올해로 10회를 맞이한다. 문학제에서는 시백일장, 청소년문학상, 지상세미나, 문학의 밤 등 박재삼의 문학 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강연과 함께 시낭송과 박재삼 추모 살풀이 공연도 펼쳐진다.

4. 삼천포 대교 기념 공원

삼천포 대교 기념 공원은 창선-삼천포대교의 준공 기념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다. 삼천포 대교 기념 공원 내에는 **박재삼 시인의 시[아득하면 되리라]** 시비와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 등 여러 조각 작품이 세워져 있다. 삼천포 대교 주변에는 고려 말부터 왜구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대방리의 군영 숲이 있는데 대방리의 군영 숲에는 팽나무와 느티나무가 많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훈련장과 휴식처로 사용되었다.

1)박재삼문학기념사업회: 2001년 5월 8일 결성 되었으며, 그의 문학성을 기리고 전승하기 위하여 박재삼거리 지정에 이어 문학기념관 건립과 박재삼 문학상 제정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곳이다.

<제9조>

Ⅰ. 김동리의 생애

20071119 박 영 훈

김동리(1913-1995)는 본명은 시종으로 경상북도 경주 출생이다. 경주제일교회 부설학교를 거쳐 대구 계성중학에서 2년간 수학한 뒤, 1929년 서울 경신중학 4년에 중퇴하여 문학수련에 전념하였다. 1934년 시 <백로>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함으로써 등단하였다. 이후 몇 편의 시를 발표하다가 소설로 전향하면서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화랑의 후예>,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산화>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서의 위치를 다졌다.

1947년 청년문학가협회장, 1951년 동협회부회장, 1954년 예술원 회원, 1955년 서라벌예술대학 교수, 1969년 문협 이사장, 1972년 중앙대학 예술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1973년 중앙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1년 4월 예술원 회장에 선임되었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 온 그는 8·15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진영에 가담하여 김동석·김병규와의 순수문학논쟁을 벌이는 등 좌익문단에 맞서 우익측의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작품활동 초기에는, 한국 고유의 토속성과 외래사상과의 대립 등을 신비적이고 허무하면서도 몽환적인 세계를 통하여 인간성의 문제를 그렸고, 그 이후에는 그의 문학적 논리를 작품에 반영하여 작품세계의 깊이를 더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인간과 이념과의 갈등을 조명하는 데 주안을 두기도 하였다.

- 1931년(1세) - 음력 11월 24일, 경상북도 성건리 186번지에서 김인수님과 허임순님 사이에서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남
- 1934년(22세) -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백로> 입선, 가톨릭 청년에 시 <망월> 발표
- 1935년(23세) -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화랑의 후예>가 당선됨,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자 함, <폐도시인>, <생식>발표
- 1937년(25세) - 시인부락 동인으로 시 <구강산> <행로음>과 소설 <어머니><술거> 발표
- 1938년(26세) - 11월 2일 김월계와 혼인
- 1942년(30세) -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검열, 광명학원 폐쇄, 백씨 범부 선생님의 구속, 가택수색을 당하자 절망과 분노를 안은 채 절필을 선언, 해방까지 침묵을 지킴
- 1947년(35세) - 이북은 일제 치하 때보다 더 혹독하게 작가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월남, 첫 창작집 <무녀도>를 펴냄
- 1948년(36세) - 좌익 비평가들과의 문학 논쟁이 절정을 이룸, 소설 <역마>를 펴냄
- 1955년(43세) - 소설 <실존무>를 펴내고, 장편소설<사반의 십자가>를 연재
- 1956년(44세) - 장편소설 <춘추>를 평화신문에 연재
- 1961년(49세) - 소설 <등신불> 발표
- 1966년(54세) - 소설<까치소리> 발표
- 1967년(55세) - <까치소리>로 3.1문학상 예술부문본상 수상, 소설<석노인> 발표
- 1995년(81세) - 뇌졸중으로 사망

II. 김동리의 소설세계

20061113 문 술 빈

20071121 박 지 희

김동리의 문학은 유년기의 암울한 시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며 어린 동리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많은 작품들에서 아버지는 허약하고 부정적으로 등장하곤 한다.

작품 <어머니>에서는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가 집에 오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를 불륜에 빠뜨리고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등신불>에서는 아버지를 상실한 상황이 어머니의 개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은 더 나아가 비도덕적인 상황으로 그의 소설에 반영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황토기>의 득보와 분이 사이의 근친간의 애정을 비롯해 <무녀도>, <사반의 십자가>에서는 한 배(腹)에서 태어난 남매간의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의 문학론은 크게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로 식민지시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제2기는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까지로 해방시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제3기는 전쟁기에 해당하는 소설로 전쟁 때인 1950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라고 볼 수 있다. 제4기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안정기 때의 작품으로 1960년대 이후 소설이 이에 해당한다.

제1기 때의 소설은 일제치하라는 역사적 현실로 인해 토속적 소재를 통한 상징적 처리로 나타나곤 했다. 소설 <황토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 ‘억쇠’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때를 기다리면 사는 인물이다. 식민지 억압 속에 살아갔던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소설 <무녀도>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간접적인 상징성과 독특한 소재를 통한 토속적인 문학관을 확립한 그의 소설세계를 볼 수 있다. 무당을 통한 샤머니즘 신앙으로 토속적 소재를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제2기 때의 소설은 해방으로 혼란스런 시대에 좌익에 대한 대결의식이 강하게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연기>에서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와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가려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 시기에는 김동리 문학의 주축을 이루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반향을 보여주는 작품이 <달>과 <역마>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방기 때 그의 소설세계는 지식인의 고뇌와 해방 직후 상황을 나타낸 작품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3기 때의 소설은 현실 참여적이다. 그도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며 전쟁의 고통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비적, 낭만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작가의식을 보였다. 이 시기 그의 현실 참여적 대표소설로는 <귀환장정>을 들 수 있다. ‘의권’과 ‘상복’이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 힘든 현실에서 점점 서로 다름 길을 가는 두 주인공을 볼 수 있다. 두 주인공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점점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후에 가정과 동료, 사회에서 소외되는 ‘상복’을 통해 사회현실을 잘 보여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제4기 때의 소설은 정치 사회적 현실이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예전의 그의 작품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그의 대표작품인 <까치소리>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살인적 광기에 휩싸이는 ‘봉수’라는 인물을 통해 생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소설은 그 때의 시대상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제1기부터 제4기까지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당시 사회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기본적인 소설의 주제인 토속적인 신앙이나 자신에 운명에 대한 반항을 주제로 한 소설은 시대상과 관련 없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바탕으로 써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희경, 『김동리 소설연구』 ; 서준섭, 『현대소설의 아비상실』 ; 김동리, 『우리집이야기』 ; 최지현(2005), 『김동리 소설연구』

III. <등신불>의 이해

20051140 조 혜 근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은 작자가 추구하는 ‘신을 내포한 인간상’을 그린 것으로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 속 화자인 ‘나’가 살고 있는 시대배경은 1943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이다. ‘나’는 일본에 있는 대정대학의 재학 중 일본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대정대학의 유학자들을 찾아 나서고 ‘진기수’라는 사람을 찾게 된다. ‘나’는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 [願免殺生 歸依佛恩](원컨대 살생을 면하게 하옵시며 부처님의 은혜속에 귀의코자 하나이다.)이라는 글을 써 보며 ‘진기수’의 도움을 받아 정원사로 가 은거하게 된다. 그곳에서 생활 하던 어느 날 등신불을 보게 된다. 그 불상은 거룩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러움을 지닌 다른 부처님불상과는 달리 머리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오뇌와 비원이 서린듯한, 그러면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있는 모습이어서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다.

그 불상의 모습이 충격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천이백년 전 기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개가를 한 집에서 새 형제를 만났는데 이름은 신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를 위해 신을 죽이려고 신의 밥에 독약을 넣었는데 그것을 본 기는 신의 밥을 먹으려고 하였고, 어머니가 말했다. 신은 집을 나가버렸고 기는 신을 찾아오겠다며 나가 절로 들어가게 되었다. 절에서 취회스님을 만나 받은 은공을 갚기 위해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자기 몸을 불전에 헌신하려 하지만 수도생활을 더 하게 된다. 그러던 겨울에 길을 나섰다 십년 전에 집을 나간 신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신이는 문둥병이 들어있었다. 만적은 자기 목에 걸었던 염주를 신이의 목에 걸어주고 정원사로 돌아와 화식을 끊고 말을 잃었다. 그 해 만적은 소신공양을 하는데, 명주를 발끝에서 어깨까지 감싸고 기름을 붓는 일을 한달동안 반복하며 숨 쉬는 화석이 되었을 때 향로를 머리에 올려 몸을 태워 공양을 하였다.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하여 나가는동안 불기운이 그의 정수리를 뚫었을 때는 몸이 움츠러들었고,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 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져 갔다. 소신공양을 본 대중들은 대개 신병을 고쳤고 따라서 새전이 삼년간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 새전을 모아 만적의 타다가 굳어진 몸에 금을 씌워 등신불을 만든 것이다.

만적의 얘기가 끝나자 원혜대사는 ‘나’에게 오른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나’는 손을 올렸다. 그 손은 ‘진기수’에게 혈서를 바치느라 잘린 손이었다. ‘나’는 자신의 손이 만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나’가 ‘진기수’에게 귀의의 뜻을 보이기 위해 잘랐던 손가락

과과 등신불이 동계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미를 원해대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즉 ‘나’가 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살고자하는 욕망이라기보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김동리는 인간의 가장 결정적 진정성을 불교의 ‘소신공양’에서 발견하고 있기에 ‘나’와 만적이 동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김동리가 말한 ‘신성을 결들인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소설속의 배경은 중국이지만 실제로 김동리가 작품의 소재를 마련한 곳은 다솔사이다. 김동리의 형 범부의 큰아들인 지홍과 김동리는 한 살 차이로 친구처럼 지냈는데 지홍이 다솔사의 사무를 보고 있는 인연으로 작가는 다솔사에서 지홍과 함께 선당에 머무르며 작품의 소재거리를 마련하였다. 다솔사에도 소신대가 있는데,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 몸의 많은 부분을 태우는 것을 ‘소신’이라 한다. 김동리는 한용운스님과 범부, 다솔사 주지인 최범술과의 대화에서 몸을 태워 공양하는 ‘소신공양’에 대해 알게되자 충격을 받고 작품을 구상하였다.

<등신불>외에도 다솔사를 거쳐 해인사에 침거할 때 까지 작가가 체험했던 수많은 불교적 체험들을 담고 있는 작품에는 <황토기>, <저승새>, <찔레꽃>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집문당, 1996)

IV. 다솔사, <등신불>과 <바위>의 산실

19991101 강 성 보

1. 다솔사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때 범승 연기조사가 창건한 역사 깊은 고찰이다. 조선 영조때 건물로 가장 오래된 대양루는 극락전, 응진전과 함께 유형문화재이다.

주산인 봉명산 기슭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솔사에 딸린 암자는 봉일암, 보안암 등이 있으며, 영악사 중건비문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4년(503)에 창건되어, 최초의寺名을 영악사라 하였으며, 선덕왕 5년(636)에 자장율사가 중창하여 사명을 다솔사라 하였다. 그 후 원효대사 의상이 문무왕 16년(676)에 세 번째로 중수하고 다시 사명을 운봉사라 했으며, 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네번째로 중수, 사명을 영악사로 다시 개칭하였고, 고려 말 공민왕 때(1352~1372)에 왕사 보존제자 해동이 다섯 번째로 중수하였다.

절 이름인 다솔에 대해서는 이 절에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위의 기록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절의 주산이 마치 대장군이 앉아 있는 듯하기에 많이 거느린다는 뜻에서 다솔이라 붙여졌다는 것이다.

2. 김동리와 다솔사

경주가 고향인 김동리 선생은 백씨 김범부 선생이 일본 경찰에 쫓겨 더이상 서울 생활이 어렵자 그를 따라 1935년 다솔사에서 두 달간, 해인사에서 6개월간 같이 머문다. 이어 1937년 3월 다솔사의 재정으로 절에서 4km 떨어진 봉계리 원전에 「광명학원」(원장 최범술)이 설립되자 강사로 학동을 가르쳤다.

선생은 37년부터 43년 10월경 광명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사천에서 머물렀으며, 38년 3월(24세) 만해 선생의 주례로 야학에서 만난 김월계(당시 20세)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 2년간 행복했으나 아들 진홍이 경기로 숨지는 충격과 징용장 발부 등으로 혼돈을 겪는다. 46년 3

월 가족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 전 선생은 사천청년회 회장으로서 사천인민회 결성 저지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나섰다. 김씨는 또 선생의 〈황토기〉, 〈불화〉 3부작, 〈극락조〉, 〈저승새〉, 〈찔레꽃〉, 〈눈내리는 저녁에〉 등의 작품에서도 다술사의 소재가 다수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시 삶과 죽음은 김동리의 직접적인 테마였다. 다리 밑에 기거하는 문둥이들의 비참함과 신으로 향하는 인간들의 절실함과 진정성은 그 자신에게 독서와 고뇌를 안겨 주었다.

3. 다술사, 「등신불」, 「바위」

<등신불>과 <바위>는 모두 60년대 쓰인 작품으로 모두 김동리의 다술사 시절의 경험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등신불에서는 인간의 진정성에 대한 물음, 목숨을 건 신으로의 발걸음을 형상화하고,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담보로 한 진실과의 거래로 볼 수 있다. 이 모티프는 한용운 스님과 범부, 범술, 세 분과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고 얻어진 것이다. 손가락 끝에 스치는 불도 끔찍하게 느끼던 당시의 동리에게 자신의 몸을 태워서 소신공양을 한다는 사실이 더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에 작품을 구상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렸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바위는 인간의 실제적 존엄과, 비참함 속에서도 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절실한 영원과 삶에의 희망을 다룬다. 숭고한 삶과 더불어 존엄과, 삶에로의 영원을 품은 이야기들은 저자가 그 당시 인간과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뇌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 이태동, 『김동리』(지학사, 1985) ;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집문당 1996) ; 이진우, 『김동리 소설 연구 : 죽음의 인식과 구원을 중심으로』(푸른사상, 2002)

V. 김동리 관련 유적

20061133 이 영 수



(↑김동리 선생님이다) (↑선생의 묘와 부인의 묘라고 한다) (↑무녀도의 예기소)

, 그와 관련된 유적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그를 살펴보면 그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1927년 조선일보에 <백로>로 입선되었고, 1935년 중앙일보에 <화랑의 후예>로 등단이 되었다 한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생가는 경북 경주시 성건동 186번지. 그곳은 빼곡히 주택들이 들어서있어서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생가에 대한 사진 또한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아쉽게도 그의 생가 사진을 구하지 못해 자료에 넣지는 못했지만 그의 묘 사진을 구할

있었는데, 묘의 후면에는,

‘김동리찬 金東里讚’ 무슨 일에서건 지고는 못견디던 한국문인 중의 가장 큰 욕심꾸러기, 어여
쁜 것 앞에서는 매양 몸살을 앓던 탐미파 중의 탐미파, 신라 망한 뒤의 폐도에 떠오른 기묘하게
는 아름다운 무지개여 1996년 6월 1일 미당 서정주 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다. 그 이외에 그의 소설에 배경이 되었던 곳들 중에 무녀도라는
곳이 있는데, 김동리는 그의 고향 경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죽음과 영원을 고민했다 한
다. 천년 전 죽은 이들의 역사가 살아있는 경주라는 도시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소설 <무녀도>는 김동리가 자라난 경주시 성건동 일대와 그 주변 하천이 합쳐지는 지점에
위치한 예기소(혹은 애기천수)를 배경으로 신과 인간,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무당 모화가 살았던 곳은 경주읍에서 오리쯤 떨어진 조그만 마을인데, 여민촌 혹은 집성촌
으로 부르는 마을이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의 생가 일대에 집성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더 자료를 올려놓고 싶었지만 너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조
사해봤으면 좋겠다.

<제10조>

1. 박경리의 생애

20071123 시 민 경

박경리의 문학적 삶에는 고통과 즐거움이 같이 있다. 그는 종종 “나는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문학을 했으며 훌륭한 작가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인간으로서 행복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곤 했다.

작가 박경리는 1927년 10월 28일 경남 총무 출생으로 그의 본명은 박금이다. 그의 아버지는 유랑 생활을 자주했고, 또 이곳저곳에 가정을 꾸렸으므로 그는 아버지가 있으되,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출생이 불합리했다고 표현한다. “나의 출생은 불합리했다. 이 허무한 세상에 왜 내가 태어났으랴 하는 따위의 뜻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관계에서 온 나의 견해였다.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에 대하여 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적의에 찬 감정으로 일과했다. 어찌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미워한 여인에게 나를 낳게 했는가 싶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산신에게 빌어 꿈에 흰 용을 보고 너를 낳았으니 비록 여자일망정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시시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신에게 증오하고 학대하던 남자의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애원을 한 어머니를 경멸했다. 그것은 사랑의 강요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은 내게다가 결코 남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는 굳은 신념을 못 박아주고야 말았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경멸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런 극단적인 감정 속에서 고독을 만들었고, 책과 더불어 공상의 세계를 쌓았다.”-〈반향 정신의 소산〉, 현대문학사 편, 〈착작실기론〉

박경리는 1945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 김해도씨와 결혼하지만, 6·25전쟁 때 남편이 납북된 후 딸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1955년 8월, 박경리는 등단한다. 등단작은 <계산>이다. 그 이후, 김동리에 의해 <흑흑백백>이 추천 완료되어 1956년 8월 박경리는 <흑흑백백>으로 드디어 작가가 된 것이다. 박경리의 삶은 이때부터 소설쓰기에만 전념한다. 1957년 단편 <불신시대>로 제3회 [현대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 1969년 8월부터 <토지>라는 우리 민족 문화를 응집, 축성한 말의 탐이 쌓이기 시작한다. 1972년 「토지」 1부로 제7회 ‘월탄문학상’을 수상하고, 그 말의 탐쌓기는 1994년 8월에 26년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토지>는 그가 연재를 시작하고 암 선고를 받으면서까지 완결지은 작가 박경리의 삶의 종합이자 문학의 종합이다.

박경리는 195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단편을 쓰다가 1959년 <표류도> (현대문학, 1959. 2~10)를 발표한 뒤로는 주로 장편을 썼다.

II. 박경리의 소설세계

20071124 안 인 태

박경리의 소설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리 하면 소설 '토지'가 생각나죠. 1969년부터 쓰여 지기 시작하여 , 26년 동안 계속 연재를 해온 소설이 바로 토지입니다.

박경리의 토지는 거대한 서사구조로써, 다양한 층위의 세계가 중층적인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는 동학혁명에서 외세의 침략, 신분질서의 와해, 개화와 수구, 국권 침탈,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격동의 세월이 연결됩니다.

박경리의 문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소외문제, 낭만적 사랑에서 생명사상으로 까지 이어집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라는 소설에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박경리에 의하면 '존엄성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인데 박경리는 그의 작품에서 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본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경리는 어릴 적부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서, 너무나도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박경리라는 작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과 기쁨, 그리고 미래에의 꿈 대신에 증오와 경멸,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어린나이에 말이죠.

박경리는 성장의 체험을 통하여, 자기의식을 소유하지 않은 삶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세상의 인습에 얽매어 산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 한 인간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로 자신의 삶이 꾸러지지 않은 경우,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행복감마저도 불행일 뿐이라는 것, 이것은 남편을 붙잡아 두려한 어머니가 역설적으로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러한 성장과정과 환경이 박경리라는 작가를 만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소설 안에서 그 시대의 배경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성이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이 작중화자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박경리 자신의 인생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성에 대해서, 농민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던 박경리는 소설을 보면 그것들이 쉽게 느껴집니다.

후에 박경리에겐 문학적으로 여러 변화가 찾아오고, 그 변화를 멋진 예술로써 승화시킵니다. 박경리의 소설세계는 이처럼 다양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소설세계가 많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I. <김약국의 딸들>의 이해

20061117 변 현 지

박경리의 문학적 업적은 1969년에 시작하여 1994년에 끝낸 대하소설 『토지』로 대표된다. 박경리의 작품인 『김약국의 딸들』은 초기의 주관적이고 폐쇄적인 틀에서 벗어나 타인과 사회로 관심을 확대시킨 대표적인 장편으로, 『토지』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⁶⁾ 경상남도 통영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집안의 몰락이 지닌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김약국의 어머니가 비상(飢)을 먹고 자살하는 대목에서 비롯되는 비극의 씨앗은, 결국 김약국의 딸들이 하나하나 몰락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작품 전체가 논리적 인과법칙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운명의 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그것에 의해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김성수의 큰아버지인 김봉제는 김약국을 경영하다가 사망한 후 성수가 약국을 이어받게 되며 김성수의 아버지인 김봉룡은 성격이 충동적이며 걱정적이며 아내를 사모했던 송옥을 죽이게 된다. 김성수 곧 김약국의 딸들은 5명이 있는데 용숙은 일찍 과부이지만 개성이 강하며 둘째 딸인 용빈은 지적인 여성이지만 애인인 홍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다. 셋째 딸인 용란은 관능적인 여인인데 머슴과 놀아나는 바람에 지탄을 받게 되며, 넷째 용옥은 애정이 없는 남편 기두와 별거하다가 뱃길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막내딸인 용혜는 소설 속 미미하게 존재하는데 김성수의 죽음 후에 둘째 딸 용빈과 함께 통영을 떠나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여기서 봉룡의 아들인 김성수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성수에게 주어진 비극적 조건 중에 첫 번째의 외적 조건은 불운한 성장과정이다. 포악한 아버지 봉룡의 성격과 얼음같이 차가운 숙정의 어머니의 성격이 빚어낸 사건과 자신을 미워하는 큰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며, 또한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을 차례로 잃어가고, 동시에 그의 사회적, 경제적 입지에 타격을 입으며 끝내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비극적 조건이다.⁸⁾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에게 가장 비극적인 조건은 소설 전체를 휘감고 있는 샤머니즘적 분위기의 세계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구한말 일제하라는 시간 배경과 통영이라는 공간과 맞물려 폐쇄적이고 숙명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여기서 일제하라는 시간적인 배경은 그 시대적 상황이 갖는 직접적인 의미를 드러내다기보다 전근대적이고 압제적인 의미의 상징성을 소설이 갖는 샤머니즘적인 세계와 부합시킨 것이다.⁹⁾

김성수 곧 김약국의 흥망은 바다와 직결되어있다. 김약국이 능력 밖의 일인 어장사업에 손을 댄으로써 몰락이 가속화 되는 것과 용숙이 바다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다. 김약국 가족의 모든 비극은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여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제도 속에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부장의 결심에 따라 결정되는 잘못된 만남의 비극이다.

6) , 「비극의 미학과 개인의 한」, 『박경리와 이청준』, (서울 : 민음사, 1982), pp.18~32

7) 명사 <약학> 비석(砥石)에 열을 가하여 승화시켜 얻은 결정체. 거담제와 학질치료제로 쓰였으나 독성 때문에 현재는 쓰지 않는다. (=마약)

그런놈이니 제아비에게 비상이라도 죽히먹였을 것이요... 《엄상섭, 삼대》

8) 이경란, 「『김약국의 딸들』의 인물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12 pp.27~50

9)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1994, 가을

IV.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

19991106 김 영 인

박경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소설 「김약국의 딸들」은 대대로 약국을 경영하다 1930년대 어장사업에 뛰어들어 김약국 일가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통영의 아름다움과 당시 사회상, 역사 등을 소개하며 시작되는 소설 「김약국의 딸들」은 일제말기 통영의 시대상이 당시 지명과 함께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독자들의 문학기행 수요가 높은 작품이다.

소설의 첫 부분은 간창골(문화동 아래 세병관 주변)봉룡의 집에서 시작된다. 김약국의 아버지 봉룡이 어머니 숙정을 찾아온 사내를 죽이자 숙정이 목을 멘 곳이다. 이후 폐가로 변해 도깨비집이라 불리던 이 집을 김약국이 다시 중수해 살게된다.

이 외에도 소설의 모든 배경은 철저하게 1930년대 통영의 지명에 맞춰져 있다.

김약국의 고종사촌 형인 이중구가 사는 곳은 동문 밖(지금의 태평동과 맞닿은 정량동)이며, 셋째 용란이 시집간 곳은 도리골(통영여중고 주변), 용란은 다시 멘데(정량동)로 이사를 가서 산다. 첫째 용숙의 집은 대밭골(명정동 충렬사 부근)에 위치해 있다.

주요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에도 통영의 옛 지명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둘째 용빈이 애인 홍섭과 헤어지는 곳은 통영초교의 교사로 사용되던 세병관에서다.

소설에는 『홍섭이 먼저 발을 떼어놓았다. 그리고 엉성하게 엮어둔 철망을 건너 교정으로 들어간다. 용빈도 뒤따랐다. 그들은 세병관-세병관은 소학교 교사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돌출대 위에 나란히 걸터앉았다』라고 묘사되고 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김약국의 처 한실(인평동)댁이 셋째 사위 연학에게 죽임을 당하는 곳은 북문(토성고개 주변) 밖 가파른 고개 위의 어느 초라한 집이다. 아편중독자인 사위는 자신의 처 용란(김약국의 셋째 딸)이 머슴과 바람이나 숨어사는 이 집을 찾아 장모와 머슴을 도끼로 죽이게 된다.

소설에는 한실댁이 용란을 처음 찾아가는 장면에서 『기두(넷째 사위)를 앞세우고 세병관 앞을 지나 재판소와 포교당 절 사이의 좁은 골목을 빠져서 북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북문고개를 넘어 다시 산비탈로 올라갔다.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좁은 비탈길을 창문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비쳐준쳐준다』고 묘사했다.

이 밖에도 소설 「김약국의 딸들」에는 동충과 서충(매립되기 이전의 오거리 시계탑 부근) 해안 변을 따라 늘어선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용화사 밑 봉수골과 해평의 가난한 집의 살림, 통영항의 여객선 터미널 모습 등 통영 곳곳이 당시의 시대상황과 맞물려 세세하게 그려지고 있다.

<제11조>

I. 이순신의 생애

20071127 우 혜 민

1. 이순신의 탄생과 유년기

이순신은 인종 원년 3월 8일 밤 11시 경 이정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행장에 따르면, 소년 순신은 어릴 적 이웃 아이들과 더불어 항상 전쟁놀이를 즐겼고, 그때마다 아이들은 순신을 대장으로 삼았다고 한다. 서울 건천동(지금의 인현동, 명보극장 부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이순신이 병정놀이를 하였다면, 그것은 일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당시 건천동에는 훈련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광경을 일상으로 보며 자란 건천동 개구쟁이들의 병정놀이는 다른 곳 아이들보다 실감날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2. 청장년기의 이순신 무과급제와 초기의 관직생활

이순신이 자라나 본격적으로 무예를 닦기 시작할 무렵 조선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무관들에 대한 대우도 상무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조선의 건국 초기와 달리 200여 년이 흐른 그 즈음에는 모든 면에서 소홀해져 있었다. 이런 시기에 이순신은 붓을 놓고 칼을 선택한 것이다. 이순신의 성격이 본래 활달하고 호방하였지만, 그보다는 그의 집안 형편이 더욱 강하게 작용 하였다고 보여 진다. 이순신은 28세가 되던 선조 5년 8월, 무예를 닦은 지 7년 만에 훈련원에서 주관하는 별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사 과목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 후,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 2월에 비로소 식년무과에 급제하였다. 이때가 선조 9년(1576)이었으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7년 전이었다. 36세가 되던 1580년 6월, 이순신은 9개월의 충청 병영의 군관생활을 마감하였다. 그는 전라도 고흥땅 발포 만호로 승진되었는데, 이는 그가 수군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계기였다. 이순신은 발포로 부임하자 육상과 다른 해상의 방비를 위하여 군기부터 점검하고 보수하였다.

선조 22년 1월 비변사의 각 신료들은 관직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여 전란에 대비하려고 각자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들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때 이순신은 그 동안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영의정 이산해와 정언신의 추천을 받았다. 그해 2월, 전라도관찰사 이광은 이순신을 자신의 군관 겸 조방장으로 삼았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고을 사또에 오른 것이다. 1590년 7월 이순신은 고사리진 첨절제사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에는 다시 만포진 첨절제사로 임명되었는데, 대간들이 너무 빨리 승진시킨다고 논란하여 그 자리에 유임되고 말았다.

3. 임진왜란의 발발과 이순신의 활약

1) 1차 출전 - 옥포해전 :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1차 출전에서 세 차례의 전투를 벌였는데, 왜선 42척을 격파 내지 불태우는 큰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조선 수군의 피해는 부상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순신은 왜군으로부터 노획한 곡식 등을 수군들에게 나누어 주며 노고를 위로하였다. 이순신은 이 싸움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2) 2차 출전 - 당포해전 : 1,2차 출전 결과, 조선 수군은 가덕도를 기점으로 그 서쪽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수를 기지로 하는 전라좌수군은 일본 육군의 서

진으로 말미암아 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그리고 부산에는 아직 일본 선박 수백 척이 정박 중이었으며, 구귀가릉, 협판안치 등 일본의 이름난 수군 장수들이 이끄는 함대는 서울까지 북상하였으므로 직접 해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

3) 선제공격으로 승리한 한산대첩 : 한산해전은 임진왜란의 대세를 결정지은 전투였다.

4) 왜군의 교두보를 깬 부산포대첩 : 부산포해전에서는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중에서도 접전마다 앞장을 섰던 녹도만호 정운의 전사는 이순신에게 큰 슬픔을 안겨 주었다. 왜수군은 부산포해전에서 궤멸되었고, 그 후 왜군은 서진 전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철저히 방어체제만을 구축할 뿐 조선 수군과의 전투는 되도록 피하였다.

5) 웅포해전과 왜군 수색작전 : 이순신은 명나라와 조선 육군의 지원을 기다리며, 두 달여 동안 해상에대한 일대 수색을 폈다. 그러나 육상에서의 지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순신은 4월3일을 기하여 수색작전을 마감하고, 여수로 회항하였다. 오랫동안의 해상생활로 군사들은 몹시 지쳐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번기를 맞아 더 이상 농사일을 방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작전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순신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이 옥에 갇힌 것을 기점으로 조선 수군은 크게 패하고 만다.

6) 노량해전 최후의 대화전

이순신은 노량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다가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 순간에 적탄에 맞았다.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 유언을 남기고, 54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노량해전을 두고 사람들은 모두 '죽은 이순신이 산 왜적을 쳐부수었다'고 하였다.

II. 이순신의 한산도가(閑山島歌) 이해

20011158 이 철 민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어 왔고 이 때문에 전란에 관련된 문학도 상당수 있다. 특히 이들 중 임진왜란과 관련된 문학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자신이 직접 겪은 전쟁의 체험을 서술한 작품이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18편이 된다.

이순신은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녀 <난중일기>뿐만 아니라 몇 편의 시조를 남겼고, 이 시조들은 문학성을 지니고 동시에 아울러 실증적 자료로서의 사실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조인 <한산도가>를 통해 살펴보면

한산도가(閑山島歌)

閑山島月明夜上成樓
撫大刀深愁時何處
一聲羌笛更添愁

한산도월명야상수루
무대도심수시하처
일성강적경침수

한산섬 달 밝은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이충무공전서>1권

<한산도가>는 이순신이 남긴 시조중 하나 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그 당시 이순신이 처한 상황과 근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를 쓴 시기는 <난중일기>를 살펴보면

달 아래 앉아서 이야기 나눌 적에 피리 소리가 처량하였다. 6월 11일

희미한 달은 수루의 침실에 비치고 잠이 오지 않으므로 밤이 깊도록 노래를 읊었다. 8월 18일

라는 기록이 있어 1594년 6월 11일이나 8월 18일, 두 날 중 어느 하루로 예상된다. 시 속에서 이순신이 홀로 담고 있던 고민과 ‘시름’은 결코 개인의 안위가 아닌, 지난날의 전투와 다가올 적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고뇌와 갈등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는 <청구영언>, <해동가요>, <고금가곡>, <가곡원류>, <연려실기술>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있으며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진중음 中吟陣

天步西門遠
東宮北地危
孤臣憂國日
壯士樹勳時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讐夷如盡滅
雖死不爲辭

천보서문원
동궁북지위
고신우국일
장사수훈시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수이여진멸
수사부위사

나라님 행차는 서쪽 관문으로 멀어지고
동궁 전하는 북쪽 변경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
외로운 신하 나라 일 걱정하는 날
장사들은 공을 세울 때이다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들에 맹서하니 초목이 알아준다.
이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다면
비록 죽을 지라도 사양하지 않으리

위 시는 이순신이 1차 출전의 승첩 후 본영인 여수(전라좌수영)로 가면서 산양읍 월명포에서 휴식하던 중 임금이 피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한 마음에 읊은 글이다

한산도야음

水國秋光暮
驚寒雁陣高
憂心輾轉夜
殘月照弓刀

수국추광모
경한안진고
우심전전야
잔월조궁도

넓은 바다에 가을 햇빛 저무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 하늘 높이 날아간다
근심스런 마음에 잠 못 자는 밤
새벽달은 무심코 활과 칼을 비추네

위 시에는 걱정으로 뒤척이는 밤에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시적 화자의 輾轉反側(전반측)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이순신이 나라를 향한 근심이 절절하게 드러내며 제갈량과 곽자의와 같은 인물들을 인용해 나라를 환란에서 구한 명장들을 사모하여 그들과 같고자 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작품인 무제육운과 전사한 부하들을 위해 제사 지내면서 지은 글인 제사망군졸문 등의 작품이 있다.

III. (閑山島歌)의 작자 시비

20051116 박 영 은

이순신 작

①閑山성 둘 볼근 밤의 戌樓에 혼자 안자 ②閑山島 月明夜 上戌樓
큰 칼 녀피 차고 기픈 시름 하는 적의 撫大刀 深愁時
어디서 一聲胡笳는 농의 애를 굿느니 <청구영언> 何處 一聲羌笛 更添愁 <충무공행록>
황세득 작

③한산섬 둘 붉은 밤이 板屋船頭 혼자 안자 ④閑山島 月明夜 獨倚板屋船頭
큰 칼 어르만져 기픈 시름 돛는 적에 手撫大劍 心懷深憂
어디서 一聲長笛은 농의 애를 굿느니<④의 복원> 何處 一聲長笛 更添愁<사산지(직산현지)>

1. **작자설:** [이태극, 「한산도가의 작자에 대한 견해」, 『한국판소리, 고전문학연구』 (1983)]

(1) <난중일기>의 “이날 밤 바다와 달은 맑고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았으며 물과 하늘은 같은 색이었으며 서늘한 바람이 잠간 불어 혼자 뱃전에 앉아 온갖 근심을 하는 중에”, “달 아래 함께 담소하며 옥피리 소리가 적적하여”, “이 때 해는 저물고 바다와 달은 매우 밝아 혼자 수루 위에 앉아”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충무공이 한산도를 지었다고 보았다.

(2) 작품에서, ‘어루만져’보다는 ‘큰칼 옆에 차고’가 대장군의 기상에 어울린다.

(3) 충무공행록, 청구영언 등의 시조집, 연려실기술 등에 충무공의 작품으로 기록되었다.

(4) 황세득은 충무공을 가깝게 모셨기 때문에 황세득의 시조는 충무공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2. **황세득 작자설:** [강전섭, 「한산도가의 작자 변정」,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986)]

황세득(黃世得) : 충무공 막하의 선봉장으로 충무공보다 한 달 전에 명장 진린을 구출하고 전사한 사도첨사(蛇渡僉使). 충무공과는 사촌동서간이다.

(1) <충무공행록>의 “또한 노래 한 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매우 격렬하였다. 그 노래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올라 큰 칼을 어루만지면서 깊은 시름할 때에 어디서 한 소리의 피리소리가 더욱 시름을 더해주는구나.’”(又作歌一闋, 詞甚激烈, 歌曰, ‘위의 ② 한역시’)라는 구절은 초간본(1709)에는 없었다가 중간본(1795)에 누군가 삽입한 것이다.

(2) <사산지(蛇山誌, 현재 부전, 직산현지, 천안)>는 김인복(선조, 광해군시대)이 정유재란 직후의 기사를 수집한 향토지이다. <장흥부사황공행적(長興府使黃公行蹟)>에 사산지의 내용을 전제한 바, “한산도에 배를 대었는데 마침 달이 밝고 파도가 잦아들었다, 황세득이 마침내 밤에 잠이 안와 이슬 맞으며 뱃머리에 앉아 강개하고 처량해 하며 칼을 쓰다듬고 격렬해 하다가 노래를 지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판옥선 머리에 혼자 앉아 손으로 칼을 어루만지며 마음이 만 섬이나 될 정도의 깊은 시름에 쌓여 있을 때 어디서 한 소리의 긴 피리소리가 시름을 더하게 하는구나.’”(舟次閑山島, 正值月明波息, 世得竟夜不眠, 露坐舷頭, 慷慨挽腕, 撫劍激烈 作歌曰, ‘위의 ④번 한역시’)라 하여 여기에 실린 것이 가장 오래된 한산도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3) <충무공행록>의 한산도가는 후에 누군가가 <사산지>를 참고하여 추가한 것이다.

(4) ‘큰 칼 옆에 차고’라는 위엄의 표현보다는 ‘칼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며’가 나라를 걱정하고 표현으로 더 적합하다.

(5) 따라서 ④번이 원형의 한역시이며, ③번이 원형의 복원시이며, ①은 변형시이다. 즉 황세득의 시조가 구두로 전해오다가 충무공의 시로 건강부회되어 청구영언에 채록된 것이다.

3. 1995년 **낙관이 찍힌 한문초서체의 한산도가**가 공개되어 현충사에 보관중이다.

이 자료는 서인달이 소장하던 것을 1968년 이종학이 구입해 1998년 현충사에 기증하였다. 이 한산도가는 충무공이 한산도를 빼앗긴 1597년 8월 보름 전남 보성 열선루에서 읊은 것으로 되어 있다.

★ 현재 한산도가는 통영 남망산에 시비로, 한산도 수루에 현판시로,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황세득의 시비로(2002) 세워져 있다.

IV. 이순신 관련 유적

20061120 송 아 름

20071128 이 석 원

♣ 관음포 전몰 유허비각

사적 제232호 남해군 고현면(古縣面) 소재로 관음포 앞바다인 이락파(李落波)와 노량을 잇는 해역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최후의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충무공이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추격하다가 적의 유탄을 맞고 장렬한 최후를 맞은 곳이다. 이락파가 보이는 연안에 공을 배향한 이락사(李落祠)가 있는데, 공이 순국한 후 1832년(순조 32) 8대손 이항권(李恒權)이 제단을 설치하고, 비와 각을 세웠다. 경내에는 <대성운해(大星殞海: 큰 별이 바다에 지다)>라고 쓴 묘비각(廟碑閣)과 순조 때 홍석주(洪奭周)가 세운 유허비, 그리고 1973년 건립한 사적비가 있다.

♣ 남해 충렬사

남해대교를 건너 벚꽃터널을 지나 노량마을로 내려오면 충무공 이순신이 관음포에서 전사한 후 시신을 잠시 모셨던 남해충렬사와 바로 앞바다에 떠있는 실물크기의 거북선이 있다. 남해충렬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순신 장군이 3개월간 묻혔던 자리에 아직도 가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1598년 11월 19일 돌아가신 충무공의 유해는 지금의 남해 충렬사 자리에 안치되어 있다. 1599년 2월 11일 전라땅 고금도를 거쳐 외가동네인 아산 현충사 자리에 운구되어 안장되었다.

규모는 통영 충렬사 등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1973년 6월 11일, 사적23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우암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쓴 이충무공묘비와 사우, 그리고 충무공비와 충민공비, 내삼문, 외삼문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청해루와 장군의 가묘 등 모든 시설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남해 충렬사 앞 노량바다에 떠 있는 거북선은 20여년 전에 이희승 등 학자들의 고증으로 본래 크기대로 복원된 것인데, 원래 진해사관학교에 있던 것을 1999년 12월 남해로 옮겼다. 그 내부에는 천자, 지자, 현자총통 등을 비롯한 각종 무기류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들이 갖춰져 있다.

♠ 제승당

한산도에 위치한 제승당은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의 큰 일을 맡으면서 손수 지휘하여 지은 집이다. 경내에는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곳으로 한산대첩도 등 5폭의 해전벽화가 전시되어 있는 제승당과 충무공 영정이 모셔진 충무사, 활터인 한산정, 그리고 수루가 자리 잡고 있다. 1593년 8월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를 제수 받아 한산도에 본영을 설치하였을 때 지금의 제승당 자리에 장수들과 작전 회의를 하던 운주당(運籌堂)을 세웠다. 그러나 원군의 모함을 받아 서울로 떠날 때 까지 세 해 여덟 달 동안 머물면서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그 곳은 1597년의 칠천량 싸움에서 우리 군사가 지게 되자 그 때 경상 우수사이던 배결이 거기 비축되어 있던 쌀과 무기 따위를 왜적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불을 지름으로써 잿더미로 변하였다.

정유왜란 때 폐허가 되어버린 이 곳에 제107대 통제사 조경(趙敬)이 1739년에 유허비를 세우면서 제승당이라 이름 하였고 1976년 지금의 제승당과 충무사, 한산정, 수루 등을 새로 짓고 경내를 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현충사

현충사는 온양온천에서 4km 떨어진 아산시 염치읍 방화산 기슭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의 사당으로 그가 성장하여 무과급제 할 때까지 사시던 곳이다. 이순신 장군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지 108년이 지난 숙종 32년 이 곳에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1707년 숙종께서 친히 현충사란 이름을 내렸다. 정부에서는 이 곳을 사적 155호로 인근 아산시 음봉면 어라산에 있는 공의 묘소를 사적 112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전 내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유물관에는 일생기록이 십경도와 국보 제76호인 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충무공이 살던 옛집, 활터, 정려 등이 경내에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밖의 유적들로는 우리 수군의 용전으로 적을 물리쳐 크게 이긴 곳으로 사천해전지, 거북선이 왜선을 무찌르는 장면과 수군의 장령들이 왜선을 향하여 분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한산 해전도, 임란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대해전이 있었던 노량해전지 등이 있다.

<제12조>

I. 유치환의 생애

20061126 유 지 나

유치환(柳致環, 1908~1967)은 본관은 진주, 호는 청마(靑馬)이고,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유준수의 8남매 중 둘째 아들이며, 극작가 유치진의 동생이다. 11세까지 외가 사숙에서 한문 공부를 하며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통영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922년 통영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 도요야마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형 유치진이 중심이 된 시동인지 「토성」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가세가 기울어 4학년 때 귀국, 1926년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고, 이듬해인 1927년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참새」 제2권 제1호에 토막 시 <단가> 9편을 발표하였다.

1928년 퇴폐적인 학교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1년 만에 중퇴하였다. 당시 시단을 풍미하던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정지용의 시에 감동하여, 형 유치진과 함께 회람잡지 「소제부」를 만들어 시를 발표하였다. 1931년 「문예월간」에 <정적>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하였다.

1937년 통영으로 이주하여,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 무렵 시동인지 「생리」를 최상규, 장응두, 권주용, 박영포, 유치상, 최두춘, 김기섭과 함께 부산 동구 초량에서 발행하였다. 이후 5집까지 간행되었다 하나 확실치 않다.

1939년 첫 시집 「청마시초」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초기의 대표작인 <깃발>, <그리움>, <일월>등 55편이 수록되었다. 1940년 3월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 연수현으로 이주하여, 농장관리인 등에 종사하면서 5년여에 걸쳐 온갖 신산을 맛보고, 광복 직전에 귀국하였다. 이때 만주의 황량한 광야를 배경으로 한 허무의식과 가열한 생의 의지를 쓴 시 <절도>, <수>, <절명지> 등이 제2시집 「생명의 서」에 수록되었다.

1946년 청년문학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문학운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5월 시집 「생명의 서」를 펴냈다. 1950년 6·25동란 중에는 문인구국대를 조직, 육군 제3사단에 종군하였다. 「보병과 더불어」는 이 무렵의 시집이다.

1953년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줄곧 교직으로 일관하였고, 안의중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하여 경주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를 거쳐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67년 2월 13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하였다.

II. 유치환의 시세계

20051127 원 수 진

문학적 경향으로 볼 때 유치환이 우리 시사에서 소위 생명파 혹은 인생파에 속하는 시인이며 그의 시가 생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의지라든가 생명의 본질 같은 것을 탐구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주제 면에서 그의 시는 인생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소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유치환 역시 다른 시인들처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간 그 자체는 말할 것 없고 사회, 자연, 사물, 도시, 문명 등이다. 제목만을 보더라도 <나의 겨레>, <전선에서> 등은 사회를, <단풍>, <산> 등은 자연을 <문>, <깃발>, <편지> 등은 사물을 <우체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 등은 도시문명을 시로 쓴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치환의 시의 소재들은 대체로 인간의 이야기를 담기 위

하여 취재된다. 사회나 도시문명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 이외 다른 것들 즉 자연이나 사물 등도 유치환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유치환은 그 자체를 대상 삼아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자연이나 사물을 시에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유치환의 시에 있어서 자연이나 사물은 그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대상에 관한 이와 같은 태도는 가령 청록파 시인들과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청록파 시인들은 유치환과 달리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자연 자체의 의미를 탐구했기 때문이다.

유치환이 그의 시에서 탐구했던 인생의 의미는 대체로 사랑과 생명과 사회이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세 번째 시집 『울릉도』(1948)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만년에는 주로 생명탐구에 몰입하였다. 예컨대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1960)까지는 사랑, 생명, 사회에 골고루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후 타계하기까지는 대부분 생명에 관련된 시들을 썼다. 그가 초기에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두었던 시적경향은 생명의 탐구였다. 유치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고귀한 것은 생명이며 생명에 대한 열애와 생명력의 완전한 충족 그리고 그 영원한 지속을 동경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이 처한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을 그릴지 못하다. 존재란 언젠가 소멸, 죽음에 이르며 그가 종국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허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이 세계에 영원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영원이란 곧 무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유치환은 허무밖에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그 존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절대적 허무 혹은 영원한 무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최고로 실현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여긴다. 즉 유치환에게 있어서 생명의 본질이란 의지에 있는 것이다.

유치환이 그의 문학적 생애를 통틀어 초지일관하게 탐구하였던 주제는 인생론적 문제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유치환이 몰두했던 인생론적인 테마란 삶이나 생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이었다. 다시 말하여 유치환의 담론은 일반 시인이 통념적으로 지향하는 바 문학적 가치 창조에 있었다기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사색을 언어화하는 일에 있었다. 그 결과 유치환이 스스로 시인이라 불려지기를 거부하고 그가 쓰는 시가 일반적인 ‘시’와 다른 ‘진실한 시’ 혹은 ‘시가 아니어도 좋은 시’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I. 깃발의 이해

20071129 이 영 준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뜻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깃발-

1. 표현상의 특징

- 역설적인 표현사용(소리 없는 아우성)
- 역동적 이미지 사용(깃발의 이미지)
- 색감의 대조('백로처럼 날개를 펼친',과 '푸른 해원')
-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
- 구체적 사물을 관념화하여 표현(깃발)

불과 9행의 짧은 시이지만 시어의 철저한 절제와 표현의 묘를 살려 깃발이 갖는 이미지를 선명하고도 계속적인 파동감으로 높이 승화시켜 놓고 있다. 즉, 빈틈없는 이미지의 전개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가운데, 시적 긴장이 '아우성', '손수건', '순정', '이념의 꽃대', '애수', '마음' 등의 주요 시어에 연결되어 도달할 길 없는 이상을 향한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1) (원관념) 깃발 → (보조관념) 소리없는 아우성,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물결 같은 순정, 백로처럼 날개를 핀 애수,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2) 모순 형용

'소리없는 아우성' - 울부짖는 듯한 깃발의 모습을 형상한 부분으로서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서 끊임없는 내적 몸부림을 보임.

2. 구성

① 깃발의 역동적 모습(1-3행) → 초월적 세계에 대한 향수

② 깃발의 순수한 열정과 애수(4-6행) → 전반부의 구체화(향수가 순수한 애정, 맑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향수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애 수로 인식한다.)

③ 인간 존재의 동경과 좌절의 아픔(7-9행) → 역설적 상황에 대한 질문

3. 깃발의 이중적 의미

깃발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솟아 있다. 깃발의 외형적인 특성, 즉 허약한 몸통과 높이 솟은 머리는 각각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이상 세계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상징한다. 즉 깃발은 세속적인 질서에서 초월하여 높은 곳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깃발은 곧 이념(理念)을 상징한다. 이념이 현실과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이념이 그만큼 현실을 앞질러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는 의지와 집념의 자세로 깃발의 몸짓을 배우고자 하나, 거기에 감히 도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감상적 허무감에 시달리고 있다. 즉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깃발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깃발'은 다섯 개의 보조 관념(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을 거느리면서 그 의미가 다채롭게 전개된다. 곧 깃발은 이념이기도 한 반면에 그 좌절의 흔적이기도 하다.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며 '노스탤지어의 손수건'으로 '푸른 해원'을 동경하는 '순정'이기도 하지만,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하는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과 '애수'는 좌절의 표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작품 속의 시적 화자는 현실의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상의 세계로 비상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막상 현실을 초탈하여 이상향으로 떠날 수 없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는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에서 방황한다. 그 때 시적 화자의 눈에 '깃발'이 포착된다.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그가 현실을 거리낌 없이 초탈할 수 없는 것처럼, 깃발도 깃대에 몸이 묶인 채 몸부림만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깃발의 나부낌 속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읽어 낸다. 깃발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시적 화자의 소리 없는 아우성인 셈이다.

주제 : 이상향에 대한 향수와 좌절감에서 오는 비애감

IV. 유치환의 사랑과 <행복>

-편지 속에 담겨진 애절한 사랑-

20021125 박 수 호

청마 유치환은 만주생활을 정리하고 통영으로 돌아와 해방을 맞이한다. 그 해부터 통영여자 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게 되고 그의 아내는 <문화유치원>을 운영한다. 청마는 <문화유치원> 마당 옆에 자리한 유치원 사택 2층에다 서재(작업실 이름을 영산장으로 불렀다)를 마련하고 시작에 전념한다. 그 이듬해 1947년 청마는 향리 통영여자중학교에서 이영도를 처음 만났다. 이영도는 스물하나에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딸 하나를 데리고 언니가 살고 있는 통영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당시 이영도의 형부가 통영에서 꽤 알려져 있는 인물로 통영우체국 맞은편에 박애당 약국을 운영하였고, 이영도는 통영여중 교사선생으로 근무하면서 약국 옆에 부업으로 수예점을 차려 놓고 있었다. 우연이었는지 청마의 작업실에서 이영도의 수예점이 내려다보였고 청마는 이영도를 사모해 매일같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맞은편 우체국에서 부치곤 했다. 그러기를 3년 드디어 이영도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은 시작되지만 청마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없었으며 안타깝기만 했다. 청마의 편지는 곧 시였고, 그의 시는 곧 이영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행복 中 1, 4연

청마의 작품 중 하나인 <행복>은 이를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애절한 심리를 시 속에, 곧 편지 속에 그대로 담아냈다. 청마가 이승을 떠난 후 이영도가 엮은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에 보면 1952년 6월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거의 20년 동안 청마가 이영도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영도는 청마의 편지를 사과상자 세 상자의 양을 갖고 있었는데 6.25 때 한 상자를 불태워 버렸다고 하며, 이런 것들은 둘의 연분이 얼마나 애뜻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V. 유치환 시인의 유적

20071130 이 용 희



경남 통영의 청마문학관은 이곳 통영 출신의 시인인 청마 유치환 선생의 기념관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 맑고 시원한 시 세계를 열었던 청마 유치환 선생이 시풍과 이곳 문학관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이곳에는 청마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마 선생이 태어난 곳은 그 곳이 아니라고 한다.

청마 유치환 선생은 1908년 지금의 통영 시내인 태평동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워낙 복잡한 곳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자리에 생가를 복원하고 문학관을 세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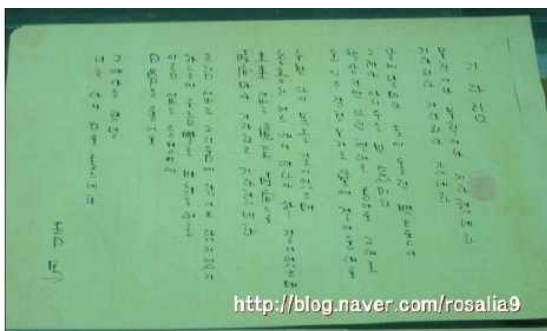
청마문학관은 도입부와 각각 다른 주제로 세 개의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입부에서는 청마 선생과 다른 통영 출신의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있고, 전시실은 각각 청마의 생애, 청마의 문학, 청마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다.



문학관 내 유치환 흉상



문학관 내 유품과 사진 자료들



문학관 내 친필 원고



남망산 공원의 시비

그 외의 것으로는 문학관 내 유치환 시인의 생가와 청마거리 통영우체국 앞의 시비가 있다.

<제13조>

I. 최인훈의 삶

20071132 이 호 영

최인훈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작가이다. 최인훈은 1936년 4월 13일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 맨 끝에서 있는 도시에서 4남 2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최인훈의 아버지인 최국성은 상인이었고, 백두산에서 베어낸 나무들이 뗏목으로 거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도 하고 화목으로 팔고 또 종이도 만들어 팔기도 했다. 회령에서 회령북국문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국민학교 5학년까지 일본말 교육을 받았다. 1947년 8.15 광복 후 최인훈은 중학교 1학년 때 가족과 함께 원산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원산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12월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1개월 간 부산 피난민수용소 생활을 거쳐 목포에 정착해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과대학에 재학 중 중퇴하였다. 최인훈은 1955년 시 「수정」을 『새벽』에 발표하였으며, 1959년 「GREY 구락부 전말기」를 써서 처음 만난 안수길 선생에게 「GREY 구락부 전말기」와 「라울전」 두 작품을 모두 추천받게 된다.

최인훈의 문단 데뷔작품은 소설 「라울전」이라는 작품이다. 「라울전」은 안수길 선생에게 추천되어 『자유문학』을 통하여 문단에 등장했다. 「라울전」에서 ‘사울’과 대립되는 인물로 ‘라울’을 살펴보면 절망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최인훈의 작품 중 「광장」(1960)이라는 작품은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최인훈이 25세에 발표한 원고지 600매 정도의 중편소설이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뒤 3회에 걸쳐 수정, 가필한 끝에 분량이 800매로 늘어나게 된다.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한 최초의 소설이자 전후문학 시대를 마감하고 1960년대 문학의 지평을 연 첫번째 작품으로 평가되며, 문학적 성취면에서도 뛰어난 소설로 꼽힌다.

그 밖의 작품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의 절망을 그린 「회색인」(1963),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내용을 담은 「총독의 소리」(1976), 박태원의 소설 제목을 그대로 차용해 1960년대 후반기의 양심적인 예술가상을 제시한 「소설가 구보씨의 1일」(1969),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한 「하늘의 다리」(1970), 한국의 신화 세계를 통해 민족의 본성을 탐구한 희곡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1976), 냉전 이데올로기의 근원지를 찾아다니며 존재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한 자전적 소설 「화두」(1994) 등이 있다.

최인훈은 작품 「웃음소리」로 동인문학상(1966),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로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1977), 중앙문화대상 예술부문 장려상(1978), 「달아 달아 밝은 달아」로 서울극평가그룹상(1979), 1994년 제6회 이산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95년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1977년~2001년까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임을 하였으며, 1995년부터 현재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에 거주하고 있다.

II. 최인훈의 소설세계

20071133 정 정 호

최인훈의 작품들은 전후 시대의 이념의 혼돈과 밀실-광장의 단절,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인 결핍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고뇌, 분단 상황에서의 나약한 지식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방향과 관념적 성찰 등 작품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성격의 글이라기보다는 전체적

으로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어렸을 적 전쟁 중 월남하는 과정에서 키워온 실항민 의식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광장에서는 작가의 의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주인공 이명준 역시 전쟁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실항민의 고뇌를 그려내고 있으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는 소설가 ‘구보 씨’가 월남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갈등한다.

최인훈의 작품에는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내용의 소설이 주류를 이룬다. 「광장」, 「회색인」, 「화두」 등의 소설에서는 역사 철학적이며 깊이 있고 세심한 사유를 바탕으로 쓰여 졌다. 「광장」에서는 광장이 없는 밀실과 밀실이 없는 광장인 남과 북의 대립에 끼어버린 지식인의 외로운 자기성찰을 그려내고 있다. 이명준의 모습은 자아 혼란의 시대상에 살면서 꾸준히 자기를 찾는 당시 세대의 고뇌를 대변한다. 이에 이 작품에서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구조차이를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다가가 자신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가혹한 현실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지식인들의 고통이 담겨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과 사건을 묘사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는 우리 시대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무능력한 채 부대껴야만 하는 한 지성적인 소설가의 모습으로 대표된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형이상학적인 성찰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고뇌는 현대 한국 지식인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회색인」에서는 한국의 현실과 역사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거듭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도고준’의 끊임없는 회의와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인훈 소설은 크게 세 시기를 걸쳐 단계적 변화를 겪게 된다. 첫 번째 시기는 순수한 관념을 작품 내에 중심으로 삼고, 그의 관념과 연관지었던 시기이다. 「GREY 구락부 전말기」(1959)와 그의 등단작품인 「라울전」, 「가면고」(1960)와 같은 작품이 이러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이다. 이 후 두 번째 시기에는 그의 작품에 보다 생동감 있는 현실감과 우화성을 도입하는 시기이다. 「광장」과 「회색인」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현실감을 작품에 담아냈으며, 「서유기」는 우화성이 첨가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는 「두만강」(1970)과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갈대의 사계」가 있다. 이 시기에 최인훈은 소설이라는 수단을 빌려 작품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작품의 형상화, 인물의 표현 등 소설의 전형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관념적 이성을 표출하였기에 작품들의 독립적인 내용 창출에는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작가 자신의 내면적 사색을 그대로 반영한 관념표출로써도 그렇거니와 당시 사회의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그 문학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광장」의 이해

20011178 최 진 용

「광장」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반전의 태도에 빚대어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않는다. 「광장」 내에서 작가의 태도는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오히려 중립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작가가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체제 비판을 동시에 함으로써 주인공 ‘이명준’이 결국 제3국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명준’의 아버지 ‘이형도’는 월북한 남로당원이며, ‘이명준’은 아버지를 이상적인 혁명가라고 여기며 살았었다. 또한 그는 북한을 ‘광장’이란 이미지로서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이상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월북하여 찾게 된 현실 속 아버지는 그가 생각하였던 ‘이상적인 혁명가’가 아닌 ‘젊은 여자와 재혼한 부르주아’였으며, 북한은 타락하고 훼손된 ‘광장’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 비춰진다. 월북하기 전 그가 살아왔던 남한은 ‘광장’과 대조되는 ‘밀실’이었다. 그만큼 사방이 막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었으나, ‘광장’을 잊도록 만들었었다. 이에 남한에 실망과 환멸을 느끼고 ‘광장’과 ‘밀실’의 동시 영유를 꿈꾼 ‘이명준’은 월북하였지만 훼손되고 타락한 ‘광장’과 북한에서는 존재할 수 없던 ‘밀실’의 부재는 남한과는 다른 환멸감을 ‘이명준’에게 안겨주었다.

결국 「광장」은 ‘광장’과 ‘밀실’이 서로 간에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의 존재가 인식되지 못하거나, 퇴색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 ‘광장’과 ‘밀실’을 중간에서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는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준’은 이 중개자적인 모습을 북에서 만난 ‘은혜’에게서 찾는다. 그녀를 통해 이데올로기적인 연결이 아닌, 실재적인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준’의 삶을 버티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려고 할 때에 전쟁에 간호병으로 참전했던 그녀는 전사하게 된다.

그녀의 전사를 계기로 ‘이명준’은 더 이상 북한에 미련을 남기지 않게 된다. 이미 이전에 ‘밀실’의 모습에서 남한에 환멸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에는 과거에 느꼈던 실망감을 ‘은혜’를 통하여 극복하고, 삶의 애착하려 하였으나 그녀는 전사하였다. ‘이명준’은 이제 남한과 북한 양 진영에서 희망과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후 전쟁은 더욱 격렬해지며, 북한은 열세에 몰리게 된다. 그 와중에 ‘이명준’은 전쟁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진다.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명준’은 돌아갈 곳을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으로 정한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모두에 비판적인 성향을 띠며, 작가의 중립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이명준’을 통하여 양국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엿보고 제3국행이라는 행위로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한다. 또한 ‘이명준’의 중립국행을 남한과 북한에서 보낸 과거에서의 도피적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명준’은 인도행 배에서 자살을 하게 된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갈매기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작가는 갈매기가 전사한 ‘은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즉 ‘이명준’이 모순된 양국 이데올로기의 피해자지만, 과거에서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IV. 거제포로수용소와 <광장>의 배경

20061130 이 소 희

■ 거제포로수용소

거제포로수용소는 1983년 12월 20일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6.25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민족역사교육 장소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1950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많은 포로가 생겨 부산·경북 등지에 분리 수용했으나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1950년 11월 27일 거제도 고현·수월·양정·상동·용산·해명·저산 지구를 중심으로 360만 평에 포로수용소를 설치했다.

이 시설에는 인민군, 중공군, 포로, 의용군 등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지금은 건물의 일부만 남아 있고 고현리, 수월리 등지에 당시의 유적이 남아있다. 1983년에 건립된 유적관에는 그 당시의 사진과 장비 및 의복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6·25전쟁과 포로수용소에 대한 영화도 부분적으로 제작 상영하고 있다.

■ 「광장」과 거제포로수용소

최인훈의 「광장」은 1960년 4·19 직후 처음으로 분단 문제를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응시한 소설이다.

당시 포로수용소는 UN군과 한국군이 같이 관리하였는데, UN군의 경우 휴전협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모두 북으로 보내 버릴 생각을 하고 포로관리에 안일하였다. UN군들은 포로들의 분류를 하지 않고 친공포로, 반공포로를 모두 같은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일함으로 포로수용소 내에서는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포로수용소 내에서도 전장과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수용소 내의 반공포로의 수가 친공포로의 수보다 열세에 있었으며, 반공포로가 덜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지라 주로 당하는 이들은 반공포로였다고 한다. 현재에도 친공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킨 자료가 전시장에 남아있다.

이 후 휴전 협정이 마무리 되고 포로들의 처리문제를 다루는 시점에서 3가지 유형의 포로가 남아 있었다. 북으로 가려는 친공포로와 남에 남으려는 반공포로 그리고 제3국으로 가려는 사람들, 이와 같이 분열된 집단의 모습은 「광장」에서 나타나는 관점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3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은 남과 북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중립적이고 회색적 성향을 띤 이들로 치부할 수 있으며, 최인훈은 그들과 같은 중립적 관점의 「광장」에서 보이고 있다.

주인공 이명준 또한 부패하고 방탕한 남도, 부자유와 경직된 북도 아닌 중립국을 택하게 된다. 나고 자란 조국을 등지고 중립국 행을 선택할 때 그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최인훈은 위와 같은 거제포로수용소의 상황이 작가의 관점과 작품 내 이명준의 태도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에 거제포로수용소를 광장의 배경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로 생각된다.

<제14조>

I. 김춘수의 생애

20071134 조 성 아

김춘수는 1922년 11월25일 경남 통영읍 서정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8세 때 당시 통영읍에서 4,50리 떨어진 안정의 간이보통학교에 다니다 서너 달 만에 통영공립보통학교로 전학했다. 통영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39년 경기공립중학교 5학년 때 자퇴하고 11월에 동경으로 건너갔다. 대학 수험 준비를 위해 간다에 있는 학원을 다닐 무렵 릴케의 시집을 발견하고 감동, 그 뒤 일어난 릴케 문헌을 섭렵했다. 다음 해 4월 일본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 당시 대가 시인 하기하라 사쿠타로 교수가 강사로 나와 시론을 강의하였는데 이 시인이 김시인에게 문학의 길을 걷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김시인은 우리말로 일본 천황과 총독정치를 비방, 동료 중 한 사람이 배반함으로써 불경죄로 연루, 헌병대에 끌려갔고, 사상혐의로 7개월간 유치되었다. 이 사건으로 요시찰 인물로 낙인이 찍혀 일제 말에는 숨어 다니기도 했다. 광복 후 통영에서 유치환, 윤이상, 김상옥, 전혁림, 정운주 등과 통영문화협회를 결성해 근로자를 위한 야간 중학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연극 음악 문학 등의 예술운동을 했다. 이때부터 시작활동을 본격화했다. 1948년 8월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통영에서 자비로 출간했다. 서문은 유치환이 썼고 유치환의 극찬을 받았다. 1950년 6.25직전인 3월에는 두 번째 시집 '늪'을 출간, 서정주의 서문은 아주 짧았다고 더 정진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해 7월, 전쟁으로 답답하고 초조한 날들을 보내며 그 심정을 토로한 시들을 묶어 세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1953년 4월에 네 번째 시집을 등사판으로 출간했다. 이 시집엔 연작시를 담았고 제본까지 손수 하였다. 1959년에는 문교부 교수자격심사규정에 의해 4월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자격을 인정받았다. 6월에는 시집 '꽃의 소요'를, 11월에는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을 출간했다. 1969년 십여 년 간의 암중모색 끝에 '무의미시'로 넘어가기 직전이 과도기 작품들을 묶은 시집을 출간했다. 1981년 4월 시인으로서 특이하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1991년에는 현대시학에 연재한 글들을 모은 시론집 동지를 3월에 출간했다. 다음해 3월 시선집 '돌의 불에 불을 대고'를 간행하였고 10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93년 4월 간행한 산문시집 '서서 잠자는 숲'은 30년 간 시도해 온 '무의미시'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간의 방법론적인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허심하게 쓴 산문시 시도의 결정체들을 묶어놓은 책이다. 다음 해 김춘수 시전집을 간행하였고 2004년 11월 29일 기도폐색증으로 사망하였다.

II. 김춘수의 시세계

20043112 김 수 정

김춘수의 시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무의미시 이전의 시와 무의미시 이후의 시로 나뉘인다. 무의미시 이전의 김춘수의 시는 대상을 해독한 정서적 혹은 관념적 의미를 감각화한 것이다. 이때 대상은 의미에 의하여 변형되며, 시와 대상은 의미를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대상과 의미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존

재하는 것이다. 그의 초기 시는 이런 인식 아래 쓰여진 다소 감수성 짙은 관념적인 시들이 주조를 이룬다. 이후 시인이 꽃에 관한 일련의 시들은 이른바 대표작이다. 김춘수만큼 ‘꽃’이라는 대상에 관념의 무게를 얹은 시인이 드물 정도로 의미가 무겁게 부여된 시들이다. 꽃이라는 존재가 인격화되고 극대화된 이 시들은 인식론적 깊이, 존재론적 탐구, 이데아의 세계관으로 해석되는 관념과 비의의 시 세계이다. 즉, 김춘수 초기의 경향은 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물의 본질과 진실성을 추구하였다.

무의미시 이후의 김춘수의 시는 존재론적 역설의 세계관 위에 쓰여진 시로써 무의미시 이전의 시와 무의미시의 변증법적 지양 태로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춘수의 존재론적 역설의 세계관은 무의미시에 내재해 있던 <해체에의 충동>과 <무의미시를 지향하려는 의지>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통합시켜 <무의미시 이전의 시>와 <무의미시>의 변증법적 지양태로써의 <무의미시 이후의 시>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모더니즘 시 가운데서도 초현실주의 계열의 무의미시의 흐름에 접맥되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김춘수 이전의 초현실주의 계열의 시가 자생적인 것이 아닌 데서 오는 기법만의 시인에 비하여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그의 세계관의 바탕 위에 선 자생적인 무의미 시로써 본격적으로 대상과 의미의 속박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의 경지에 다다른 언어예술이다.

무의미시 이후의 김춘수의 시는 우리 시사에서 처음으로 의미와 무의미를 통합한 포괄의 시가 됨으로써 우리 시의 영역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III. “꽃”의 이해

20021154 이 윤 수

해석과 부연 설명 없이도 시 <꽃>은 좋고, 한 눈에 잘 들어오는 작품이다. 우리들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은밀한 바람을 담고 있는 시이고 또 김춘수의 시로서는 드물게 의미를 지향하는 시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에는 누구나 다른 이에게 ‘꽃’이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받아 가슴이 저리게 된다는 점을 느꼈을 것 같다. 아무 것도 아니었던 내가 ‘꽃’처럼 특별한 존재가 된다. 처음 두 연을 읽어보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주길 간절히 바라는 ‘나’는 우선 ‘그’의 이름부터 불러준다. ‘그’를 ‘꽃’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야말로 실체를 만들고 생명을 획득하게 한다. 따라서 1연의 “불러 주기 전은” 2연에서 “불러 주었을 때”로 진행한다. ‘불러 주다’라는 행위를 통해 ‘그’를 존재하게 하고 ‘나’의 존재도 자각하게 만든다. 시인은 ‘꽃’이 지닌 본래의 뜻을 버리고 인격화된 ‘꽃’을 통해서 존재를 나타냄과 실존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는 ‘나’와 ‘그’의 관계는 ‘나’와 ‘누가’의 관계로 확장된다. ‘누가’는 어떤 일정한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는 오히려 시적 애매함이 갖는 맥락이고 나의 존재성까지 가장 잘 알아주는 그 누군가에 의해 이름 불리고 싶은 의지와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이름으로 불리길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3연에서 ‘꽃’은 ‘그의 꽃’이 되겠다고 한다. 내 존재를 일깨우고 불러주어 4연에서 ‘무엇’과 ‘눈짓’이 될 수 있게 해준 ‘그의 꽃’이기 때문이다. 4연은 ‘그’와 ‘나’는 ‘우리들’이 되고 ‘너’와 ‘나’로 거리를 좁힌다. 서로 욕망을 아는 ‘나’와 ‘너’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각기 존재하던 욕망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보편적인 바람이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서로 닮은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IV. 김춘수 관련 유적

20071135 조 영 재

1. 통영 김춘수 생가



김춘수 생가는 남망산 공원 입구에 위치한 동산약국 옆에 옛날 김춘수 선생이 살았던 자리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옆에는 김춘수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방앗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2. 마산 3.15 의거 기념 시비

이 시비는 1960년 3월15일 밤에 일어난 마산 3.15의 거를 김춘수 시인이 보고 1960년 3월28일 발표한 시다. 3·15국립묘지 끝자락, 12면의 화강암 벽면에는 10편의 3·15의거 기념시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 중 제일 앞자리에는 김춘수 시인의 시 ‘베코니아의 꽃잎처럼 이나’가 있다고 한다.

당시 해인대학(현 경남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김춘수 시인은 “1960년 제 딸도 마산여고에 다녔으며, 그런 또래의 학생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져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중성동 집에서 이 시를 썼다.”고 말하였다.

참고문헌: 金斗漢, 『金春洙의 詩世界』 (文昌社, 1997)

백석기, 『김춘수 문학 앨범』 (웅진출판, 1995)

이은정, 『현대시학의 두 구도 : 金春洙와 金洙暎』 (소명출판, 1999)

<제15조>

Ⅰ. 김수로왕과 허황옥

20051115 박 나 영

1. 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인.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서기 24년)에 김수로왕이 탄생하고 나라 이름을 대가락(大駕洛) 또는 가야국이라 칭하였다.

그 후 24년(서기 48년) 술신(戊申) 7월 27일에 허황옥이 등장한다. 수로왕이 서기42년 알에서 태어난 이후 6년이지나 28년에 혼인을 하게 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생후 6년 만에 혼인을 하였다는 것에 의구심이 생기나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며 이는 신화라는 것에 그 비중을 두어 깊이 해석하지 않기로 한다.

수로왕이 다스리던 가락국의 아홉 촌장이 왕에게 혼인을 진언한다. 곧 신들 사이의 절묘한 처녀들을 뽑아 배필을 삼도록 권하였으나 수로왕은 이를 거부하였다. 같은 해 7월27일 가락국 앞 서남쪽 해상에서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가야국 쪽을 향해오는 배가 있었다. 그것이 육지에 도착하자 처녀 한 사람과 신하 두 명이 내리었는데 그 처녀가 바로 가야국의 왕비인 허황옥이었다.

수로왕은 예견이라도 하였는듯 미리 나아가 산기슭에 장막을 치고 기다렸다. 허황옥은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신령에게 예물로 드린¹⁰⁾ 다음 수로왕 앞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자신이 가야국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수로왕은 곧 그것에 답하고 또한 미리 예견하였음을 말하였다. 이것이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혼인이었다.

2. 아유타국의 공주와 김해 허씨의 시조

허황옥(수로왕비)은 슬하에 자손 10명을 두었고 그중 2명에게 자신의 성을 사성(賜姓)¹¹⁾하였다. 이것이 김해 허씨의 유래인 것이다. 또한 허황옥은 수로왕에게 진언하여 가락국의 모든 제도를 중국의 주(周)나 한(漢)을 따라 바꾸게 하고, 각료들의 명칭 또한 바꾸는 등 전면으로 개편을 이루게 하였다. 이는 지금의 인도에 존재했던 아유타국(현재의 명칭은 아요디아)의 공주로 선진문화 속에 성장한 허황옥이 가락국의 문명수준을 끌어올리려 한 의지가 관철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가락국은 철의 대량 생산이나 질 좋은 토기의 생산을 못하고 있는 단계였으며 단순한 화폐경제 방식만을 받아들인 실정이었다.

10) 온 처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한국 민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매우 흥미 있는 행위. 여자가 바지를 입는 민족은 많지만 바지는 처녀와 유부녀의 구별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처녀들만 바지위에 원피스를 입다가, 초경이 지나 여인이 되면 긴치마로 바꾸어 입는 것이 전통이다. 허황옥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는 행위는 미혼녀가 결혼하려는 통과 의례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11) 성(姓을) 내려줌 또는 물려줌

II. 구지가의 이해

20021170 정 한 별

구지가 (龜旨歌)

龜何龜何 (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수기현야)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번작이깍야) 구워서 먹으리

-출전 『삼국유사』 제2권 <기이(紀異)> 제2가락국기(駕洛國記)

1. 구지가의 배경

가락국에 아직 임금이 없어 9명의 추장(酋長)이 백성들을 다스리던 42년(후한 건무18) 3월 계육일(액을 없애기 위하여 물가에서 목욕하며 노는 날)에 마을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이삼백 인이 그 곳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가 나는데 그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구간 등이 말하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말하되, '이 곳이 어디냐?' 대답하되, '구지입니다.' 또 말하되, '황천에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 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지의 봉우리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용약하라.”하였다. 구간 등이 그 말을 따라 다같이 빌고, 또한 가무하였다. 10여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와 6명의 귀공자(貴公子)로 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를 수로라 하고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도 하여 육 가야(伽倻)의 하나이고, 나머지 다섯 가야의 주가 되었는데, 그 중 제일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수로왕이었다.

2. 구지가의 내용

龜何龜何 - 신격(神格)의 호명(呼名)으로, 주술적인 노래에서는 소원을 들어 줄 대상 신을 먼저 불러 모신 뒤에 소원을 말하는 것이 순서이다.

首其現也 - ‘首’는 일반적으로 우두머리, 왕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수로(首露 : 머리를 드러냄)’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제가 담긴 노래의 중심 구절.

若不現也 - 가정적 표현의 사용으로 위협적 느낌을 준다.

燔灼而喫也 - 위협이 극에 달해,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다.

3. 구지가의 해석

- ① 거북 점을 칠 때 부른 노래라는 견해 - 거북 등껍질을 이용한 점복 의식에서 새로운 우두머리의 출현을 예언하는 내용.
 - ② 산신 제의에서 가창된 노래라는 견해 - 구지봉의 어원과 연관.
 - ③ 다산에 대한 원시인들의 기원을 표현한 노래라는 견해 - 거북 머리를 남근 사상과 연관.
- 구지가의 해석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에는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축도가로 해석하였으나, 후에는 제사의식에서 부르는 의식가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근래에는 원시 주술적 집단 무요가 건국신화에 끼어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Ⅲ. 구지가 관련 유적

20071137 지 소 현

구지봉은 가락국 건국에 따른 가야문화의 발생지인 김해 구산동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로 원래는 거북이 머리모양을 닮았다 하여 ‘구수봉(龜首峯)’이라 불리었다. 구지봉은 신라 유리왕 19년에 하늘에서 황금알이 내려와 김수로왕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전하여지는 곳으로, 지금 ‘수로왕비릉(首露王妃陵:사적 74)’이 있는 평탄한 위치가 거북의 몸체이고, 서쪽으로 쪽 내민 봉우리의 형상이 거북이 머리 모양 같다고 하여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1908년 참봉 ‘허선’이 세운 ‘대가락국 태조왕 탄강지(大駕洛國 太祖王 誕降之地 - 대가야의 첫 번째 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태어난 곳)’란 석비(石碑)가 있으며, 고인돌무덤의 덮개돌 위에 ‘구지봉석’이라 새긴 글자가 전하여지고 있다. 구지봉은 봉우리라 불리기에는 작은 동산에 불과한 규모이지만, 가야국 건국설화인 ‘구지가(龜旨歌)’가 생겨난 곳으로, 국문학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지봉 유적의 거북이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제가 고의로 도로개설을 하여 원형을 훼손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한다.



[출처 - 문화재청]

<제16조>

1. 김종직의 생애

20071138 최 그 림

선생의 휘(諱)는 종직(宗直)이며 자(字)는 계온(季溫)이고 정필재(佔畢齋)는 자호(自號)이다. 세종 13년(1431) 6월 8일에 밀양부서 대동리(密陽府署 大洞里) 지금의 북부면 제대리 한골자택에서 태어나 야은 길재의 학풍을 이어 받음으로써 포은의 두 번째 성리학 전도자가 되는 이조 초기의 대유학자인 강호 김숙자의 재취 박씨(朴氏)부인이 낳은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강호는 이보다 11년 전 세종 2년(1420) 봄에 사재감정(司宰監正) 박홍신(朴弘信)의 따님을 재취하고 바로 선산(善山)에서 밀양으로 이거(移居)하였다. 선생은 밀양군 북부면 제대리 대동(大洞)에서 성장하여 세종 18년(1436년 병진) 6세 때에 비로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단종 원년(1453) 23세에 진사가 되고 겨울에 초례(醺禮)를 행하고 이 해에 비로소 태학에 가서 주역을 읽고 성리(性理)의 근본 이치를 탐구하였다.

세조 3년(1457년) 10월 밀양에서 경산(京山 : 星州)으로 가다가 답계역(踏溪驛)에서 숙박했는데, 그 날 밤 꿈에 신인(神人)이 칠장복(七章服)을 입고 나타나 전한 말을 듣고 슬퍼하며 세조 찬위를 비난한 글을 썼는데 이것이 조의제문(弔義帝文)이다. 세조 5년(1459)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1462년 승문원박사로 예문관봉고를 겸하였다. 이듬해 감찰이 된 뒤 경상도병마평사·이조좌랑·수찬·함양군수 등을 거쳐 1476년 선산부사가 되었다. 1483년 우부승지에 올랐으며, 이어서 좌부승지·이조참판·예문관제학·병조참판·홍문관제학·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성종 17년(1486) 56세 3월 3일에 예문관 제학을 제수하자,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교지를 받아들여 다시 『여지승람』 편차(編次)의 일을 시작하여 이창신·신종호와 함께 그 첫머리의 정리를 마쳤는데, 교리(郊理) 이의무(李宜茂)·유호인(兪好仁)·수찬(修撰) 최부(崔簿)가 서로 이어 함께 종사하여 모두 8개월을 들여 완성하였다. 성종 19년 (1488년 무신) 58세 5월에 상소하여 체직되었다가 특별히 병조참판겸홍문관제학(兵曹參判兼弘文館提學)에 제수되었다. 10월 16일에는 가선대부 한성부좌윤 겸 동지성군관사에 제수되었다. 이 해에 선생이 찬집한 『청구풍아(靑丘風雅)』·『동문수(東文粹)』·『여지승람(輿地勝覽)』이 세상에 유포되었다. 성종 21년 (1490년 경술) 60세 선생은 문인 정여창(鄭汝昌)등과 함께 상읍례(相揖禮)를 마치고 나서 경전을 강론하였는데, 반드시 정주(程朱)의 본지(本旨)에 합치하도록 힘쓰고 말마다 반드시 충효를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질병이 있는 때라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항상 도학을 밝히는 것을 사업으로 삼았다. 주상이 선생의 청빈함을 듣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쌀 70석을 내리게 하였는데, 선생이 세 차례나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종 23년 (1492년 임자) 62세 7월에 생질 강백진(康伯診)에게 명하여 서적을 맡게 하고 또 명하여 다른 사람의 서책을 돌려주게 하였다. 8월에는 병세가 매우 위중해지자, 본도의 감사가 병세가 위중해진 사유를 계문(啓門)하니, 상이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약을 가지고 역말로 급히 달려가서 치료하도록 하였다. 이 달 19일에 선생이 명발와(明發窩)에서 작고하니, 향년이 62세였다. 이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조제(弔祭)하고 치부(致賻)하였다. 부(府)의 남쪽 무량원(無量院)의 건좌손향(乾坐巽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로부터 6년후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하자, 실록청(實錄廳) 당상관(堂上官)이 된 이극돈은, 김일손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라 하고, 이를 문제 삼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고하였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이와 같은 죄악은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종직 문하의 수많은 사림파(士林派)선비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무오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여 무오사화라 한다.

참고문헌 : 『김종직의 풍교 시문학 연구』, 『金宗直 道學思想』

II. 사림파의 형성

20061108 김 은 경

사림(士林)은 고려 말, 조선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두 차례의 사화(士禍)를 겪은 15세기 말엽에 와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정치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본래 지방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으로,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유향소(留鄕所)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사장(詞章)보다는 경학(經學)을 중시하였고, 경학의 기본 정신을 송대 신유학 가운데서도 성리학(性理學)에서 구하였다. 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은 김종직(金宗直)이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김일손(金駟孫) 등의 제자를 배출하면서 그 세력이 커졌다. 성종초에 김종직 등 영남출신 사류(士類)를 등용하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훈신(勳臣)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비리로 인해 동요하는 지방사회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세조 말에 혁파된 유향소제도를 부활하여 《주례(周禮)》¹²⁾의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飲酒禮)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기반이 강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향소가 권력가의 지방에 대한 수탈의 하부조직으로 악용되었다. 이에 지방에서는 사마소(司馬所)라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대항하는 한편, 중앙에서는 삼사(三司) 등 주로 언론·문필 기관의 관직을 통해 정계로 진출하여 훈신·척신(戚臣) 계열의 비리를 비판하는 언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훈신·척신의 보복으로 사화가 발생하여 그 세력이 크게 제거되었지만, 종종 때에 다시 정계에 진출하여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종의 천거제¹³⁾인 현량과(賢良科)를 통해 자기 세력을 중앙으로 크게 진출시키고,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자(朱子)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군현마다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훈신·척신의 강한 반발로 또다시 사화가 발생하여 그 세력이 크게 꺾였다. 이후 지방에서 서원(書院)과 향약을 토대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다가, 16세기 후반 선조의 즉위를 계기로 척신정치가 일단 종식되면서 중앙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에는 척신정치의 척결 문제를 둘러싸고 선배 관인과 후배 관인이 서인(西人)과 동인(東人)로 대립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봉당(朋黨)으로서의 분기가 거듭되고 일부 세력의 도태를 겪었으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17세기 후반까지 학연을 기반으로 한 서인 남인(南人)을 중심으로 봉당정치의 질서를 수립하였다. 권력가들의 탄압을 뚫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자기들의 이념을 정치에 구현하려 한 전통은 그 후 조선 후기의 지배층이 사회와 국정을 이끄는 기본 정신이 되었다.

참고문헌 :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12) (周官)이라고도 한다. 유교 경전의 하나로 6편(篇)으로 되어 있다. 주공(周公:BC 12세기)이 찬(撰)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공이 예(禮)를 제정했다는 설에 갖다 맞춘 것이라 하여, 옛날부터 그 진위(眞僞)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13) 덕행이나 정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천거에 의해 선발하는 제도

III. 무오사화(戊午士禍)와 <조의제문(弔義祭文)>

20041138 박 유 미

무오사화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4대 사화 중에 하나이다. 사림파와 훈구파의 두 세력이 처음으로 벌인 대립이며, 사초(史草)¹⁴⁾가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성종 때 중앙 정계에 사림이 대거 등장하게 되자, 훈구파와 같이 기존에 존재했던 기성세력과 학문적, 현실적인 입장의 차이로 대립하게 된 것이 무오사화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그 대립이 지속되다 사초문제가 계기가 되어 사화를 초래하게 된다. 1469년 왕위에 오른 성종은 세조 이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476년 친정을 시작하면서 신진 사림세력을 등용했는데, 이로부터 정치, 경제, 사상 등 여러 면에 걸쳐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갈등이 깊어 갔다. 사림세력의 정치, 경제, 사상적 지향은 성종의 왕권강화 노력과 결합되면서 김종직을 필두로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등의 사림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림파의 급속한 성장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세력에게 위협이 된다. 이에 훈구세력은 사림파에 대한 숙청을 꾀하게 되었으며, 결국 1498년의 무오사화가 발생하게 된다.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¹⁵⁾을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이었던 김일손이 사초에 실었던 일이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 도화선이 된다. 1498년 실록청(實錄廳)이 개설되어 성종실록의 편찬이 시작되자 실록청의 당상관으로 임명된 이극돈은 훈구파로 “조의제문이 의제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것이지만 세조의 즉위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지목하고 이 사실을 유자광에게 알린다. 유자광은 노사신, 한치형, 윤필상, 신수근 등과 사림파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던 외척과 함께 김종직과 김일손이 대역부도(大逆不道)를 꾀했다고 연산군에게 보고한다. 연산군은 김일손, 이목, 허반 등을 보름간 스스로 신문하여 “간사한 신하가 몰래 모반할 마음을 품고 옛 일을 거짓으로 문자에 표현하며, 흉악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 세조의 덕을 거짓으로 나무라니 난역부도(亂逆不道)한 죄악이 극도에 달했다”며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을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게 된다.




사림파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얻은 훈구파는 사림세력들을 차례로 심문하고 처형하였다. 이미 죽은 김종직은 대역의 우두머리로 관을 쪼개어 시체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당했으며, 생전에 지어놓은 많은 저서들이 불살라졌다. 그 밖에 김일손과 이목, 허반, 권오복, 권경유 등은 세조를 욕보였다고 처형당했으며 표연말, 홍한, 정여창 등은 조의제문의 내용에 동조했거나 김종직의 문도로서 당을 이루어 국정을 어지럽게 했다는 죄로 곤장을 맞고 귀양에 처해졌다. 또한 김종직의 관작만을 빼앗자고 주청한 대간(臺諫)들도 모두 논죄되었으며, 어세겸, 이극돈, 유순 등은 김일손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벼슬에서 쫓겨났다. 반면 무오사화를 주도한 윤필상, 노사신, 한치형, 유자광 등 훈신들은 논발과 노비 등을 상으로 받았다. 결국 무오사화로 신진사림파는 커다란 타격을 받고 중앙정계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14) , 조선 시대에 시정(時政) 등을 기록해 둔 초안. 후에 실록 편찬의 토대가 됨

15)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金宗直)이 세조(世祖)의 찬탈(篡奪)을 비난한 글

IV. 김종직 관련 유적

20071141 한 소 영

 <p><김종직 생가></p>	<p>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별세한 집으로 조선시대 사림파 유학자들의 정신적 고향과 같은 곳이다.</p> <p>여러 차례의 전란과 오랜 풍상으로 낡고 허물어진 집을 사림파 후손들이 중건해 ‘추원재’라 이름을 붙였다.</p> <p>생가 초입에 우람하고 고풍스런 느티나무가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모은다.</p>
 <p><예림서원></p>	<p>예림서원은 성종 때 김종직의 지덕을 기리기 위하여 덕성서원이란 이름으로 세워졌다. 뒤에 퇴계 선생이 점필재 김종직을 추앙하여 점필서원으로 바꾸어 친필의 편액을 걸었으나 임진왜란 때 퇴락되었다.</p> <p>후에 사람의 뜻으로 예림서원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강당과 신문을 중건하였다. 경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액서원이다.</p>
 <p><함양 학사루></p>	<p>함양의 학사루는 무오사화 때 유자광(柳子光)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김종직을 부관참시(剖棺斬屍)까지 하게 된 피비린내나는 역사의 단초가 된 곳이기도 하다. 학사루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함양(당시 天嶺郡) 태수로 부임해 올랐던 곳이기도 하다. 1962년에 중건한 이래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 1979년 군청 앞 현위치로 옮겨졌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90호이다.</p>